

#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고급편



송하나 지음

송하나 (SOHNG, Ha-na)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스 강사, 성신여자대학교 국제교육원 강사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어문화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단원 김홍도(金弘道)의 풍속화에 나타난 특징 연구: 고야 작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외 다수

##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고급편

지은이 송하나

발행일 2022년 12월 20일 1판 1쇄 발행

발행인 안병우

발행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출판등록 제381-1979-000002호(1979년 3월 31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전화 031-730-8773

팩스 031-730-8775

전자우편 akspress@aks.ac.kr

홈페이지 www.aks.ac.kr

©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ISBN 979-11-5866-698-9-137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습니다.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송하나 지음

〈한국문화강좌 한국어 고급편〉은 한국어 성인 학습자를 위한 특별 과정용(약 30시간) 한국어 교재 중 고급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책이다. 이 교재는 한국어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성인 학습자들이 한국의 사회, 문화 등 사회적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또는 한국학에 관심이 깊은 고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제 중심적 교수요목을 구성하였다. 주제는 크게 한국과 한국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둘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언어 기술을 한 과 내에서 학습하는 기술통합형으로 구성하고 구어 학습과 문어 학습이 긴밀하여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읽기와 듣기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후 활동으로 말하기를 연계하였다.

셋째, 고급 수준의 어휘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어휘는 주제 어휘를 제시하였다. 각 과의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미장으로 제시하여 체계적인 어휘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듣기 파일을 함께 제공하여 수업용으로 뿐만 아니라 자율 학습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듣기 파일에는 각 과의 듣기 텍스트와 오디오 파일을 제공하여 연습과 복습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사진과 삽화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제공하여 실제적이고 흥미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원의 각 항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 자료를 통해 의미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2022년 11월

송하나

# 책의 구성

**STEP 1 어휘**

**목표**  
 1. 10개의 어휘를 공부하고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2.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어휘**  
 1. 10개의 어휘를 공부하고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2.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 STEP 1 어휘

주제 관련 어휘 및 어휘장을 제시하여 어휘 확장을 돕고, 한자, 사자성어, 속담 등을 통해 어휘 및 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STEP 2 활동하기**

**목표**  
 1.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2.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활동하기**  
 1.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2.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 STEP 2 활동하기

문화 관련 텍스트를 바탕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화와 함께 한국어를 학습한다.

**STEP 3 더 알아보기**

**목표**  
 1.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2.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1.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2. 10개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할 수 있다.

## STEP 3 더 알아보기

어휘와 활동하기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응용력을 높이고 다양한 관련 주제를 알아본다.

머리말 .....	4
책의 구성 .....	6
<b>01</b> 소개 - 외모 .....	9
<b>02</b> 소개 - 성격 .....	23
<b>03</b> 한국인의 특징 - 빨리빨리 .....	33
<b>04</b> 한국인의 특징 - 정 .....	45
<b>05</b> 한국인의 특징 - 커피 .....	55
<b>06</b> 음식 - 삼계탕 .....	67
<b>07</b> 음식 - 떡국 .....	81
<b>08</b> 가족 .....	91
<b>09</b> 교육 .....	101
<b>10</b> 우리말 .....	115
<b>11</b> 그림 .....	125
<b>12</b> 화폐 .....	139
<b>13</b> 사랑 .....	151
부록 .....	161



01

# 소개 외모



나와 친구의 외모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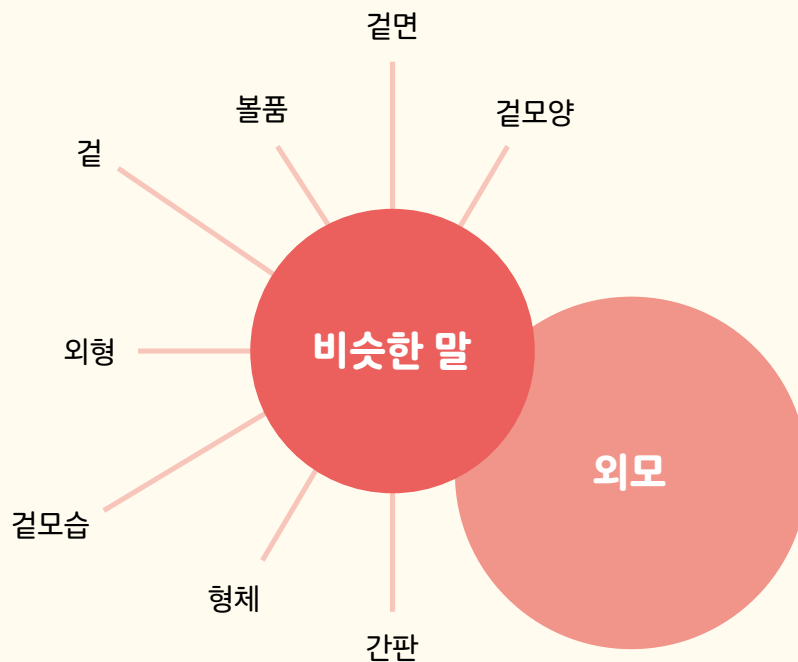
### 핵심어휘

**외모(外貌)** 겉 외 外 / 모양, 모습 面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겉모양

**경국지색(傾國之色)** 기울 경 傾 / 나라 國 國 / 조사 지 之 / 빛 색 色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



## 얼굴



둥근 얼굴

넓직한 얼굴, 네모난 얼굴,  
각이 진 얼굴

가름한 얼굴

## 눈



큰 눈

작은 눈



동그란 눈

날카로운 눈

쳐진 눈

반달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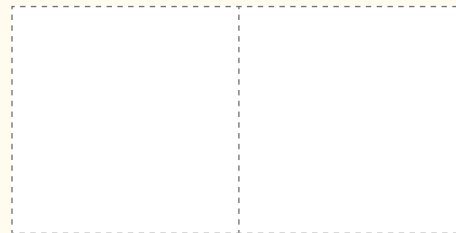
## 코



높은 코

낮은 코

## 입술



도톰한 입술

얇은 입술



신윤복, <미인도>




② 다시 잘 들으면서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친구 1




친구 2



친구 3



친구 4



## 읽기

### 1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관상>은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의 이야기이다. 처남 팽헌, 아들 진형과 산속에 칩거하고 있던 그는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내경이 용한 관상쟁이로 한양에 소문이 돌던 무렵, 김종서로부터 사헌부를 도와 인재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아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양대군이 역모를 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한다.

다음은 영화 <관상> 홍보영상 속 등장인물 소개이다.

이마와 코가 봉긋한 게 명예와 재물이 따를 것이고 입은 도톰하고 붉으니 굵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눈썹은 일자형에 눈동자는 흑과 백이 분명하여 맑게 빛이 나니 성격이 곧고 반듯하여 훗날 이름을 크게 떨치며 성공할 상이로다.

귀가 작고 코는 오뚝하니 초년보다는 중년에 성공할 상으로 직사각형의 날렵한 얼굴은 조직생활은 어울리지 않으나 턱과 아래 입에 힘이 있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인기가 오랫동안 높을 상이로다. 코가 시작되는 눈 사이가 위로 솟았으니 곧 재물과 인연을 만나 신세계가 시작되겠구나.

관골이 두드러져 명예도 보이고 이마가 풍성하고 밝은 빛이 나고 있어 큰 결실을 거두겠으나 코 끝이 뾰족하게 들려서 재물이 썰 수 있으니 여자에게 꼭 잡혀 살아야 길하겠으며 위와 아래 입술의 균형이 잘 맞고 일자형의 입을 가진 걸 보니 납득이 가지 않으면 쉽게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강인한 상이로다.

이마는 밝은데 눈썹과 눈썹 사이가 넓고 풍성한 게 몹시 길하도다. 눈은 수봉안이라 봉황의 눈을 닮았으나 귀하게 살 팔자렸다. 살집 있는 코 밑으로 세로 주름이 보기 좋게 나 있으니 타짜가 되더라도 고수가 될 것이며 어디가든 돈의 맛을 제대로 볼 상이로다.

눈은 학을 닮고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게 빛이 나니 필시 이름을 날릴 것이고 아랫 입술이 풍성하고 입꼬리가 올라간 것이 좋은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이니 아녀자들이 줄줄 따를 상이로다.

- 한재림 감독, <관상>, (주)쇼박스, 2013, 139분

영화는 시작부터 결말까지 관상이라는 큰 기둥을 중심으로 시대를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의 광풍 속으로 뛰어든 어느 한 사람의 기구한 운명, 그리고 뜨거운 부성애, 각기 다른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욕망까지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다.

특히 관상 보는 법에 탁월한 최고의 관상가가 궁에 들어가 인재를 등용하는 일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관상으로 역적을 찾아낸다는 설정으로 관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② 등장인물의 외모의 특징을 적고, 그 사람과 닮은 동물을 이야기해 봅시다.



작은 귀, 오뚝한 코, 직사각형의 날렵한 얼굴  
→ 늑대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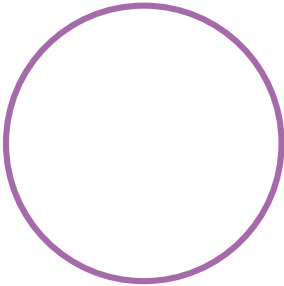
.....

.....

## STEP 3 더 알아보기

###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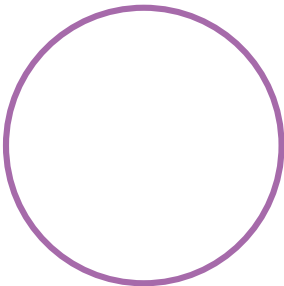
친구들의 외모를 보고 닮은 동물을 이야기해 봅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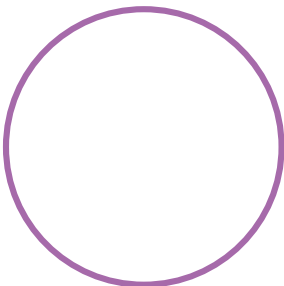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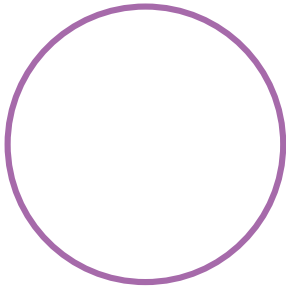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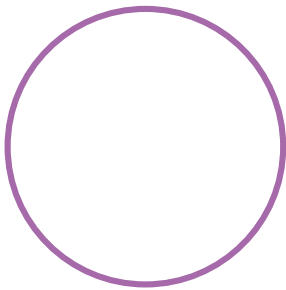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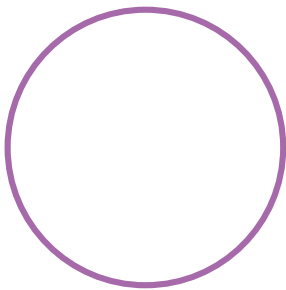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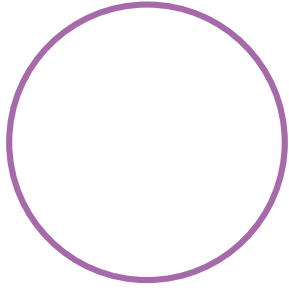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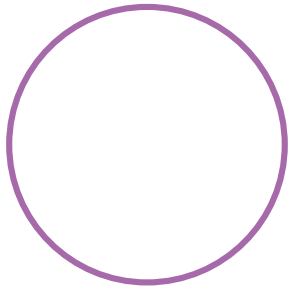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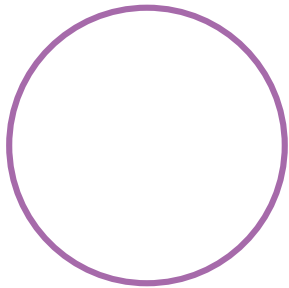
.....



.....

.....

.....



.....

.....

.....



# 소개 성격



ACTIVE



POSITIVE



PASSIVE



DEPRESSED

나와 친구의 성격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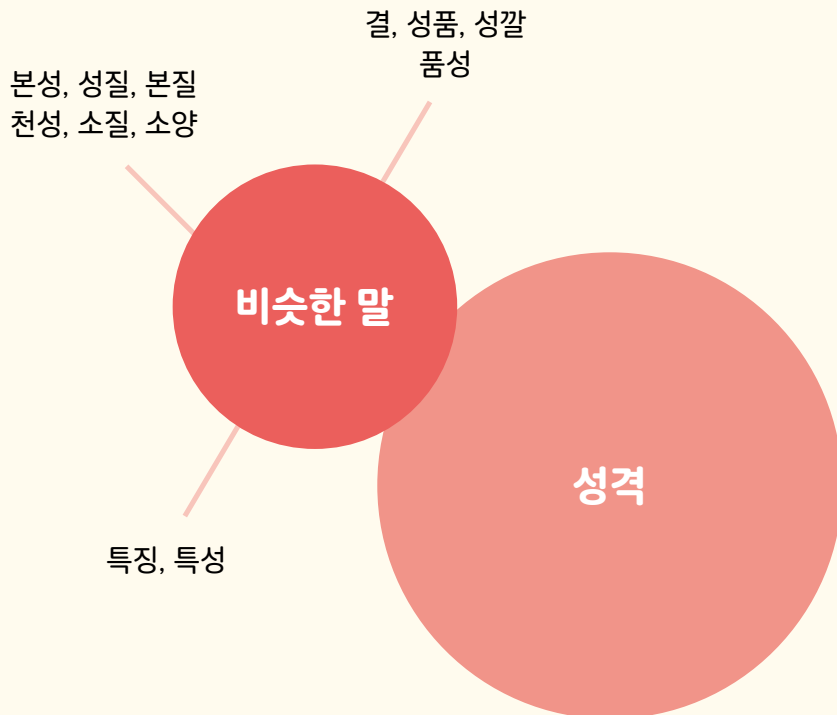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성격(性格)** 성품 성性 / 바로잡을 격格

- ①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나 품성
- ② 사물이나 현상에 구비된 고유의 본질이나 본성
- ③ 【심리】 개인의 개성을 특징짓는 독특한 심리적 체계나 행동 양식

**외유내강(外柔內剛)** 바깥 외外 / 부드러울 유柔 / 안 내內 / 굳셀 강剛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나 속은 부드러움



성격		
외향적이다	↔	내성적이다
독립적이다	↔	의존적이다
낙천적이다	↔	비관적이다
이기적이다	↔	이타적이다
적극적이다	↔	소극적이다
현실적이다	↔	이상적이다
긍정적이다	↔	부정적이다
꼼꼼하다	↔	덜렁대다
대범하다	↔	소심하다
깔끔하다	↔	더럽다
상냥하다(관대하다)	↔	까칠하다
느긋하다(차분하다)	↔	급하다
참을성이 있다	↔	참을성이 없다
따뜻하다	↔	냉정하다
인정이 많다	↔	인정이 없다

-을 띠다
-을 갖고 있다
-이 모가나다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아래에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

.....

②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박 교수님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

3 여자의 친구는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4 남자의 친구는 뭐라고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합니까?

---

## STEP 3 더 알아보기

쓰기

① 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써 봅시다.

장점

---

---

---

---

---

---

---

---

---

---

단점

---

---

---

---

---

---

---

---

---

---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글이므로 읽는 사람과 목적에 따라 자신의 능력과 장점, 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적습니다.

자기소개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특정한 직무나 역할을 겨냥하고, 담당자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는 글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글의 구성, 핵심 메시지의 배치 등 정보 전달 전략을 짜둡니다.

### **1.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나의 체험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 체험을 생각하여 그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내 경험과 생각의 이유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2.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적습니다. 나만이 가진 특별함에 대해 적습니다. 정보를 강조하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달력 높은 글을 씁시다.

### **3. 제일 중요한 문장을 처음에 적습니다.**

수많은 자기소개서 중 내 글이 눈에 띌 수 있게 가장 중요한 것들 순서대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보다는 무엇을 했고, 할 수 있는지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 **4. 문장을 주의해서 작성합니다.**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읽기 쉽게 적습니다. 문장은 되도록 짧게 쓰는 것이 읽기에 좋습니다. 쓰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읽어보면서 문장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03

# 한국인의 특징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기



①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써 봅시다.

A series of 15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ed for writing the words heard during the listening exercise.

②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

2 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까?

---

---

3 이것에 대한 높은 수요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

---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 빨리빨리, 한국

어플 하나만 가볍게 터치하면 음식이 10~30분 만에 집 앞으로 배달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상인 국가. 초고속인 인터넷 속도와 와이파이(wifi)는 두 말하면 입 아프다. 이와 같은 풍요로움에 가까운 편리함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의 중심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급격한 경제 성장과 시민사회의 치열한 경쟁의식에 영향을 받아 생성된 고유한 삶의 문화와 정서라고 입을 모은다.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유와 건강을 찾는 생활이 필요할 것 같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라는 설문조사에서 64 %가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한다. 그만큼 신속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여유가 없이 급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빠른 문화 덕분에 배달문화, 초고속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사실 한국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아무래도 도시인 서울이 빨리빨리 문화가 익숙하고 시골은 느긋하게 여유를 누리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요즘 각박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누려왔던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인에겐 공기와도 같은 일상적인 것이라 특별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선 신기하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고 한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하는 행동들을 알아보자.

###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F5 연타 or 닫는다

선진국 중에서도 초고속을 자랑하는 인터넷 속도를 누리는 한국. 이 같은 편의성은 타 국가 중에서도 특별한 것으로, 외국에 나가 여행을 하는 중 인터넷을 해보면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실로 대단한 위상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에 빠른 인터넷 속도가 어느 순간 느려진다면 참지 못하고 웹사이트 창에 F5 새로고침 키를 연타한다거나, 창을 닫으며 인터넷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와이파어나 랜선을 확인하는 등 느린 인터넷 속도에 '참지 못하는' 일상이 외국인의 입장에서선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보통의 외국에서 카드 결제 서명을 가게 주인이 대신하는 일은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민감하고 중대한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리 특별하거나 '큰일'로 취급되는 일이 아니다. 빨리 계산을 하고 떠나고 싶어 카드 서명을 해야 하는 그 한 톨의 시간도 용납하지 못하는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재빨리 다음 손님을 받아야 하는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카드 결제 대신 서명은 암묵적인 수공인 것이다.

###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어 본다

배꼽시계가 요동을 치는데 고기가 빨리 익지 않을 때, 초조하게 타들어가는 마음은 만국 공통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육즙 보전을 위해서라도 자주 뒤집지 않는 편이 좋은 고기 굽기 방법을 무시하고 연신 뒤집는 버릇을 고수한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매우 촉박하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고기를 뒤집어보고 빨리 익었는지 확인해 심리적 안정(?)을 느끼려는 것이다.

####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한다

바쁜 출퇴근 시간은 직장인들에게 고역과 같다. 교통 인프라가 매우 복잡한 한국에서 단 10분이라도 지각했다 하면 지옥철을 견뎌내야 하거나 버스 시간을 놓치는 등 하루를 암흑기 속에 구겨 넣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 이에 아침마다 온 가족이 TV를 보며 양치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를 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두 볼일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시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숨가쁘게 연타한다

국내 시설물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닫히려면 평균 5~10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특성이지만, 사람이 타지 않는데도 빨리 닫히지 않는 엘리베이터 문이 답답하게 느껴져 연신 닫힘 버튼을 연타하게 되는 경우는 한국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히지 않는다면 짜증을 내는 사람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탄 모두의 배려를 위해 암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 버스정류장서 버스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곤 한다

빨리빨리 문화가 개인의 배려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인만큼, 이 같은 문화는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버스는 승객이 탔다 하면 늘 급박하고 빠르게 출발하거나, 정류장에 사람이 찰나라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정류장을 가뿐히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버스 정차 시간을 단 1초라도 놓쳤다면 멀어져 가는 버스의 뒤태를 숨가쁘게 추격하는 일상은 바쁘고 고단한 한국인의 인생을 대리 표현하는 것으로도 다가온다.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종종 유명한 영화에는 숨겨진 메시지나 차후 시리즈를 위한 이스터 에그의 명분으로 엔딩 크레딧 중간쯤 영상을 심어 넣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채 올라가기도 전에 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엔딩 크레딧을 보는 게 좋다는 영화 문화가 있긴 하지만, 빠르게 퇴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또 는 영화관 내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러 엔딩 크레딧이 오르기도 전에 대기하기도 해 민망해서라도 빨리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3분 컵라면이 채 익기도 전에 휘휘 저어 그냥 섭취한다

한국에서 간편한 식사 대명사는 바로 3분 컵라면이다. 3분이라는 조리 시간은 뚜껑을 덮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짧고 매우 편리하지만, 일상이 고단하고 촉박한 한국인에게 3분은 매우 긴 시간일 수도 있다. 이에 3분 컵라면의 3분을 못 채우고 뜨거운 물을 붓고 휘휘 저어 면이 적당히 풀어지면 그냥 섭취하는 경우는 한국인들의 삶 속 매우 평범한 식습관이다.

1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2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

단점:

3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신기하거나 생소하게 느껴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4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04

# 한국인의 특징 정



한국인의 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정(情)** 뜻 정 情

- ①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
- ②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
- ③ [심리] 마음을 이룬 두 요소 중의 하나. 곧, 이지적인 요소에 대해 극히 감동적인 요소

### 관련어휘

- |              |                       |      |
|--------------|-----------------------|------|
| • 정을 쏟다      | • 애정                  | • 우정 |
| • 정이 들다      | • 정취                  | • 심정 |
| • 정이 떨어지다    | • 정성                  |      |
| • 정들자 이별     |                       |      |
| • 미운 정 고운 정  | • 오는 ~이 있어야 가는 ~이 있다. |      |
| • 사정사정(事情事情) | • 다정다감(多情多感)          |      |
| • 망운지정(望雲之情) | • 인지상정(人之常情)          |      |
| • 무정세월(無情歲月) | • 억하심정(抑何心情)          |      |



②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

2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

3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4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

5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 한국인의 정

정은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보면 정은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또는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을 뜻한다. 애정, 정성, 우정, 정취, 심정, 미운 정 고운 정, 정들자 이별 등 우리 사회에서 정이 들어간 단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과자의 이름에도 정이 들어간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과자는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의 비결은 맛에도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정’을 보여 주는 광고도 큰 역할을 했다. 이 과자는 사람의 마음인 ‘정’을 주제로 광고를 한다.

나는 한국에 가기 전에 ‘정’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진 못했다. 그러나 2년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서 대학교의 어학당에 다녔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시작하면서 한국문화를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어 정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멋진 기회가 되었고, 내 삶에 매우 크고 확실한 영향을 아직도 미치는 큰 변환점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고시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고시원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었으며 나처럼 몇 달 후에 이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 방은 아래층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를 자주 마주쳐서 그때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모르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다.

추석 때 고시원에서 사는 한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고향에 갔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외국인 몇 명만 고시원에 남게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향에 못 가는 외국인들에게 떡, 배, 사과와 같은 추석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주셨다. 추석은 자신의 가족과 보내는 한국 연휴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사심 없이 챙겨주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또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대학교의 바둑 동아리에 가입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모임마다 말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동아리 회장님은 내가 명절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못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내가 이날을 혼자 보내지 않도록 번개 모임을 준비해주었다. 이날은 동아리 회원 몇 명과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내가 귀국하기 전에, 동아리에서 사귀 친구들이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하자고 했고, 깜짝 송별회를 준비해주며 선물과 편지를 줘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 덕분에 외로웠을 법한 연휴와 공휴일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더하여 정이 많은 한국인, 활기찬 한국 생활 덕분에 앞으로도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지금은 한국에 오게 된 계기였던 대학교 전공을 졸업했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을 향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열심히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을 따뜻하게 대하며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남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싶다.

### STEP 3 더 알아보기

#### 말하기

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쓰기

한국이나 한국 사람에 대하여 경험하거나 느낀 점을 글로 써 보세요.

1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

---

2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

---

3 어떤 일입니까?

---

---

4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까?

---

---

5 그 일을 통하여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어떻다고 느꼈습니까?

---

---



05

# 한국인의 특징 커피



커피를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가비(咖啡)** 커피 가 咖 / 커피 비 啡

커피(cof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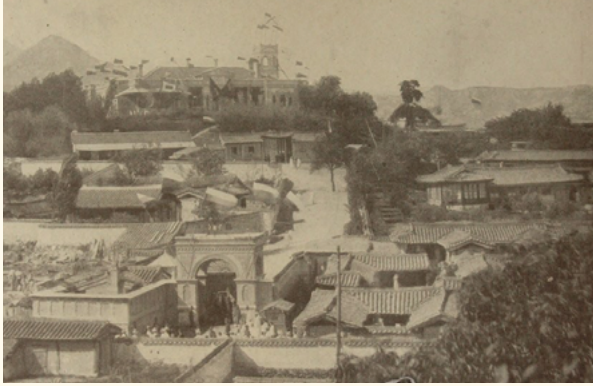
- ① 커피나무 열매의 씨를 볶아 갈아서 만든 가루
- ② 커피로 만든 차

### 관련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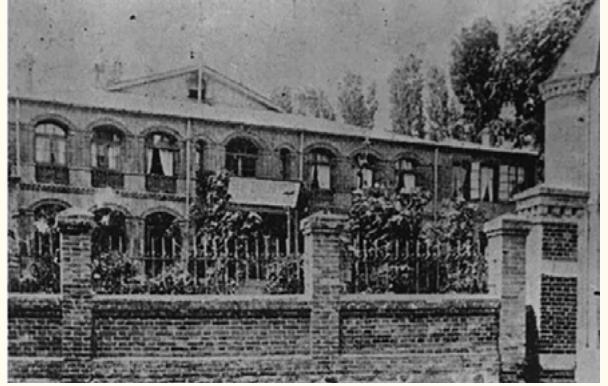
- ~의 향기를 맡다
- ~를 한 잔 마시다
- ~를 진하게 타다
- 다방
- 커피숍



고종 황제



1900년대 러시아 공사관



손탁 호텔

-----

-----

-----

-----

-----

-----

-----

-----

-----

-----

-----

-----

-----

-----

-----

-----

-----

-----

-----

-----

-----

-----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아래의 칸에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친구에게 무엇에 대해 배웠습니까?

---

3 조사에 따르면 어떻다고 합니까?

---

4 이것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

5 한국 사람들은 인사말로 뭐라고 합니까?

---

## 읽기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조선의 다방은 ‘조선만의 그것’

이 당시 커피의 유행을 보여 주는 데 소설가 이효석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한 이효석은 함경북도 최북단 경성 출신 여성과 결혼을 하며 떠나면 경성으로 이사를 했다. 경성농업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이효석은 버스로 10분 거리였던 나남에 있는 ‘동’이라는 찻집에 자주 들렀는데, 어느 때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10리 길을 걸어갔던 적도 있다고 한다. 3년 후 평양으로 이사한 이효석은 이곳에서도 ‘세르팡’이나 ‘낙랑’과 같은 다방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곤 했다. 백화점에서 갓 볶은 커피 원두를 사 가방에 넣고 향을 맡으며 집으로 향하는 전차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 그이기에 낙엽 태우는 연기 속에서 갓 볶아낸 헤이즐넛 커피 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 안식처’인 다방을 차리는 것은 당시 적지 않은 ‘모뽀’와 ‘모꼴’들의 희망 사항이었다. 1935년 6월 2일부터 『조선중앙일보』에 4회에 걸쳐 연재된 수필 「다방: 어떤 문학 청년의 일기」는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필자는 이약슬(李約瑟)이었다.

수필 「다방」의 내용은 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한 K를 중심으로 몇 명의 ‘룸펜’, 혹은 그의 표현으로는 ‘아팍슈’(프랑스어 apache 무뢰한)들이 당시 유행하던 다방을 차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풍자적이며 냉소적으로 보여 주다가 조선의 인텔리답게 조선의 현실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들이 다방을 차리기로 의기투합하는 장면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금년에 고상(高等商業) 졸업한 어느 귀한 아드님 K가 ... (중략) ... 다방을 내어 보겠다고 XX상사에 모이는 ‘아파트’들에게 의론을 하니 이구동성으로 찬성 찬성 대찬성을 코-라스를 올렸다. 일찍이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아직 이해 있는 조선 사람의 손으로 된 이상적인 다방이 없다는 것에 항상 고정(苦情)을 가지고 있어 문화적 현대 생활이 너무도 뒤떨어져 있음을 탄하든 배(輩)들이었으므로 모처럼 다방에 붙은 불이 흑이나 꺼질까 하여 붙는 불에 부채질이라는 격으로 응원 응원 대응원으로 집을 구하러 다니는 S, 설비에 대한 지식을 얻으러 다니는 C, 다방 장식은 어떻게 어떻게 무슨 식으로, 양식도 할 것인가 아닌가? 물론 양주야 좋은 놈으로 갖다 두어야지, 피아노나 오르간쯤 한 개 두는 것이 어떨까? 레코-드는 될 수 있는 대로 외국의 것으로 구해야 되어-암, 라디오야 두어야지 하고 야단이 었다.

-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4일

이 수필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C는 박사라는 별명을 가졌다. 문학 애호가인 C는 “이상(理想)의 다방 팬”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비 다방의 주인이었던 이상을 연상하며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 C는 그 전부터도 다방, 다방을 연발하고 다녔고 그럴 때마다 필자는 “18세기의 불란서 시인의 떼가 파리의 카바레-에 모여 그들의 우울을 토하였다”는 것이 연상되었다고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5년 6월 6일)

이런 표현을 보면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조선식 다방은 조선의 일부 인텔리들에게는 단순히 사교의 장을 넘어 프랑스혁명 직전의 카페를 연상케 하는 일종의 해방구로 인식되었던 셈이다. 수필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신사 숙녀의 사교장이 될 이상적인 다방의 탄생”을 기대하여 모인 것을 보였지만 필자 이약슬은 이들이 바라는 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석간 3면 기사라도 읽고 조선의 사회상을 이야기라는 다방이 아니라면 자기는 이들 룸펜들에 동조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이약술은 “조선의 현실을 한 잔의 커피에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비취 보라”는 당부의 말로 글을 맺는다. 193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 사회를 살아가던 ‘모뽀’와 ‘모꼴’의 고민과 울분을 잘 보여 주는 글이다.

1930년대 다방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1937년 1월 1일자 『매일신보』에 게재된 「감각의 삼매경, 정서 듬북 실은 다방」이란 글이다. 아쉽게도 필자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방은 차를 먹기 위한 곳이라며는 그것은 다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차를 사랑함으로 다방을 찾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다방, 그것을 사랑하여야 된다. 그것이란 분절할 수도, 설명할 수도, 이것이라 뚜렷이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 분위기 안에 동화되어서 감각하는 삼매경이다. 그곳은 도시 ‘인텔리’들의, ‘소뽀쵸아-(소부르주아)’들의 감정 생활의 한 표현으로 볼 때, 비로소 다방의 참다운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다. 가벼운 애수, 흥분, 그러한 다각한 감정이 봄날 아지랑이같이 혼합한 공기가 다방의 매력이다. 다방을 15전의 코-히로 연상하면은 그것은 잘못이다. 다방은 ‘다방’ 그것이다.

조선의 다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도 없으며, 오직 그 안에 동화되어서 느낄 때 비로소 다다르게 되는 경지, 일종의 삼매경이었다.

- 이길상, 『커피 세계사+한국 가배사』, 푸른역사, 2021, 230쪽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

2 모뽀와 모깘의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

---

3 조선의 다방은 어떻게 인식되었습니까?

---

---







06

# 음식 삼계탕



한국의 삼복더위와 보양식  
삼계탕의 유래를 알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삼계탕(參鷄湯)** 삼삼參 / 닭계鷄 / 끓일탕湯

어린 닭의 내장을 빼내고 인삼·참쌀·대추 따위를 넣고 푹 곤 음식. 계삼탕

**삼복(三伏)** 석삼三 / 엎드릴복伏

① 초복·중복·말복의 총칭. 삼경(三庚)

② 여름철의 가장 더운 기간

### 관련어휘

• 삼복더위

• 더위 먹어라

• 보양(補陽)

• 복날

• 내 더위 사라

• 보양식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써 봅시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ed for writing the words heard during the audio exercise.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삼복 중 마지막 복날을 뭐라고 합니까?

---

3 어떻게 건강을 챙기라고 합니까?

---

4 무엇이 발효 중입니까?

---

5 오늘 여러분 나라의 날씨를 말해 봅시다.

---

## 읽기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보양의 상징’ 삼계탕

1987년 8월에 주요 일간지에 실린 소화제 광고는 헤드카피로 ‘삼계탕이 아니고 계삼탕입니다’를 내세웠다. 그 내용은 이렇다.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삼계탕의 본래 이름은 계삼탕(鷄蔘湯)입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 김매순의 『열양세시기』,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등에는 계삼탕에 대한 기록이 두루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 사전에도 ‘어린 헛닭의 내장을 빼고 인삼을 넣어 곤 보약’이라고 계삼탕에 대해 풀이하고 있으니, 삼계탕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계삼탕이 삼계탕으로 바뀌게 된 것은 6·25 동란 이후부터입니다. 본래 양반 계급의 음식인지라 대중성이 없었던 계삼탕이 대중음식 점에서 음식으로 만들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삼계탕이라 잘못 불렸던 것입니다.

이 광고의 카피 문안은 치명적인 오류를 지니고 있다. 조선 후기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책인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계삼탕이란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동국세시기』에서 삼복 음식으로 먹는 구장(狗醬)에 닭을 넣으면 좋다든지, 음력 6월에 먹는 음식으로 “밀로 국수를 만들어 배추의 푸른 잎과 닭고기를 섞고 어저귀국에 말아 먹는다”든지 “미역국에다 닭고기를 섞고 국수를 넣고 물을 약간 쳐서 익혀 먹는다”는 정도의 기록이 나올 뿐이다.

조선 시대 전체 시기에 걸쳐서 닭은 계란을 얻기 위해 집에서 키우는 귀중한 가금류였다. 그래서 사위가 와야 계란을 낳는 씨암탉을 잡는다는 말이 생겨났다. 1670년

(현종 11년)쯤 안동 장씨가 쓴 『음식디미방』에는 주로 꿩고기를 이용한 음식이 여럿 등장한다. 원래 17세기까지만 해도 음식의 재료로는 닭보다 꿩을 더 높게 여겼다. 꿩도 알을 낳지만 그것이 계란에 버금가지는 못했다. 겨울에 매로 사냥을 해서 잡는 꿩이 없던 여름이 되어야 꿩 대신 닭으로 고기를 삼았다. 그런 사정이 앞의 『동국세시기』 음력 6월 편에 담겨 있다. 방신영(1890~1977)이 쓴 1917년 판 『조선요리제법』에서야 비로소 닭이 주재료로 된 닭국이 나온다. 심지어 이용기가 1924년에 펴낸 조리서인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는 닭국과 영계백숙의 두 가지 닭고기 조리법이 적혀 있기도 하다.

백숙은 한자로 ‘白熟’이라고 적는다. 여기서 한자 白에는 ‘그저’라는 뜻이 담겨 있다. 곧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하지 않고 그냥 익혀서 내는 음식을 가리킨다. 국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간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니, 1942년 판의 음식도 백숙이라 불리도 무방하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에서 소개한 닭국은 한자로 ‘鷄湯(계탕)’이라 적는다고 했다. “닭을 잘 퇴하여 굵게 찌어서 장치고 파를 썰어 넣고 후춧가루를 치고 주물러서 솥에 넣고 물을 조금 치고 볶다가 다시 물을 많이 붓고 무나박을 썰어 놓나니다. 끓은 후에 고춧가루 쳐서 먹나니라.” 여기에서 ‘퇴하여’라는 말은 닭의 털을 뽑기 위해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낸다는 뜻이다. ‘굵게 찌어서 장치고’는 토막을 굵게 내는 것을 말한다. 이 조리법은 한때 ‘닭도리탕’이라고 잘못 불렀던 닭볶음탕이다. 그런데 이용기는 닭국 조리법의 마지막에 또 다른 방법도 적어 두었다. “또는 닭의 내장을 빼고 뱃속에다가 찹쌀 세 숟가락과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께매어 끓는 물에 넣고 고와서 먹기도 하나니라.”

1917년 판 『조선요리제법』에 나오는 닭국은 어떻게 만드는 음식이었을까?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발과 날개 끝과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뱃속에 찹쌀 세 숟가락과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쏟아지지 않게 잡아맨 후에 물을 열 보시기쯤 붓고 끓이나니라.” 그런데 1942년 판 『조선요리제법』에는 닭국이 ‘백숙’이란 이름으로

변했다. 그 조리법은 1917년 판과 거의 같지만, 마지막 부분이 다르다. “물을 열 보 시기쯤 붓고 끓여 한 보시기쯤 만들어서 짜서 먹나니라”고 했다. 고기는 고기대로 먹지만 먼저 국물을 짜서 약처럼 먹기를 방신영은 권유하고 있다.

이용기는 같은 책에서 영계백숙은 “여름에는 제일등 보양하는 것이니 혹 인삼 먹는 이는 삼을 넣어 함께 고아도 매우 좋으니라”고 했다. 여기에서의 삼은 인삼가루가 아니라 수삼일 가능성도 많다. 하지만 그 이름을 결코 계삼탕 혹은 삼계탕이라고 적지 않았다. 심지어 일제시대 출판된 잡지나 신문에서 계삼탕 혹은 삼계탕이란 음식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해방 이후에도 얼마간 계속 되었다.

1948년 7월 3일자 『경향신문』의 2면 하단에는 ‘만나관’이란 영계백숙 전문점에서 낸 광고가 실렸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89번지에 있었던 천일관 자리에 새로 생긴 이 만나관에서 낮에만 영계백숙을 판다고 했다. ‘천일관’이라고 하면 일제 시대에 서울에서 이름이 높았던 요리옥이었다. 해방 정국에서 요리옥의 영업이 잘 될 리 없었으니, 상호도 바꾸고 메뉴도 일품요리인 영계백숙을 내세운 듯하다. 그것도 한여름에 광고를 냈으니 삼복에 맞춘 새로운 메뉴였다. 요리옥의 변신은 서울 명동에 있었던 고려정도 마찬가지로였다.

1950년대까지도 계삼탕 혹은 삼계탕의 이름은 여전히 닭국 혹은 백숙이었다. 인삼이 그 이유를 품고 있다. 모두 알듯이 인삼은 그 가공 여부에 따라서 크게 수삼·백삼·홍삼으로 나뉜다. 수삼은 말리지 아니한 인삼으로 다른 말로 생삼이라고도 부른다. 수삼은 물기가 사라지면 썩어버린다. 그래서 인삼밭에서 캐낸 수삼은 보통 10도 정도에서 10일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다. 그러니 인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백삼이나 홍삼으로 가공을 해야 한다. 백삼은 보통 4년 동안 재배한 수삼의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만든다. 이에 비해 홍삼은 그 색깔이 붉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6년 동안 재배한 수삼을 물로 깨끗하게 씻고, 물을 끓인 수증기로 찐다. 이것을 뜨거운 바람에 말린 다음 수분이 12.5~13.5 % 정도 남도록 햇볕에 말린다. 홍삼은 보다 오랫동안 인삼을 보관하기 위해서 개발된 결과물

이다.

고려 시대 이래 홍삼은 중국과 일본에 수출했던 한반도 명산품이었다. 날이 갈수록 고려 인삼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1910년대가 되면 국내에서도 백삼이나 홍삼이 부자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값이 싼 백삼가루가 바로 1917년 판 『조선요리제법』에 소개된 닭국에 넣는 인삼가루이다.

계삼탕이란 음식이 본격적으로 음식점의 메뉴로 등장하는 때는 1950년대 중반 이후이다. 앞에서 소개한 소화제 광고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전쟁 이후에 계삼탕은 대중적인 음식으로 판매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백삼가루로 만든 닭국이었다. 다만 닭국보다는 계삼탕이라 해야 영업을 하는 데 이로웠다. 고려 시대 이래 인삼이 누려온 보양제로서의 상징적 힘을 드디어 일반인들도 향유할 수 있다는 판매 전략이 계삼탕이란 말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1960년대가 되면 계삼탕이 삼계탕으로 그 이름을 바꾼다. 아예 닭고기보다 인삼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영계백숙을 판매하던 식당들이 삼계탕이란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유원지로 피서를 간 가족들은 삼계탕을 사먹으면서 더위를 식혔다. 요사이도 삼복이 되면 삼계탕 전문점에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친다. 여전히 보양음식의 속성을 삼계탕이 떨쳐버리지 못한 탓이다.

- 주영하, 「[주영하의 음식 100년](7) '보양의 상징' 삼계탕」,  
『경향신문』, 2011년 4월 19일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소화제 광고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

3 옛날에 닭이 귀해서 생겨난 말은 무엇입니까?

---

4 '백숙(白熟)'의 '백(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5 인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무엇입니까?

---



쓰기

여러분 나라의 보양식과 한국의 보양식을 비교해 보세요.

한국의 보양식

-----

-----

-----

-----

-----

-----

-----

○○의 보양식

-----

-----

-----

-----

-----

-----

-----

## 더 알아봅시다

### 삼계탕: 더위는 어떤 맛?

여름이 한창인 어느 날, 빈 씨가 교실에 보이지 않네요.  
왜 빈 씨는 학교에 안 왔을까요?

**선생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꾸민따오** 한국 여름 날씨가 덥지만 베트남보다는 덥지 않아요. 7월에 베트남은 40도를 넘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만약 베트남에 가게 되면 꼭 겨울에 가야겠어요. 그런데 빈 씨는 왜 오늘 학교에 안 왔어요?

**꾸민따오** 더위를 먹었대요. 아마 상한 더위를 먹어서 배탈이 났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더위는 어떤 음식이에요?

**선생님** 더위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름에 아주 뜨거운 날씨를 더위라고 해요. 그리고 빈 씨가 더위를 먹었다는 것은 여름 더위에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없고 입맛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 더! 꾸민따오 씨, 대보름이 언제죠?

**꾸민따오**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에요. 갑자기 대보름은 왜요?

## 내 더위 사가라



음력 1월 15일인 대보름 아침에 친구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가라”하고 더위를 팔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보름 아침에는 친구가 이름을 부른다고 그냥 대답했다가는 더위 사기 쉬우니까 친구가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해두었다가 대보름 아침에 먼저 더위를 파세요. 그러면 그해 여름은 더위를 먹지 않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07

# 음식 떡국



한국의 명절 설날과  
설날에 먹는 떡국을 통해  
지역별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 떡국

가래떡을 어슷하고 얇게 썰어 맑은장국에 넣어 끓인 음식

**진수성찬(珍羞盛饌)** 보배 진珍 / 음식 수羞 / 성할 성盛 / 반찬 찬饌

푸짐하게 잘 차린 맛있는 음식

### 관련어휘

• 떡국을 먹다

• 설을 쇠다

• 나이를 한 살 더 먹다

### 명절 음식



설날 음력 1월 1일



대보름 음력 1월 15일



추석 음력 8월 15일



동지 양력 12월 22일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아래에 적어 봅시다.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ed for writing the words heard during the audio exercise.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친구에게 무엇에 대해 배웠습니까?

---

3 조사에 따르면 어떻다고 합니까?

---

4 이것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

5 한국 사람들은 인사말로 뭐라고 합니까?

---

## 읽기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하면 떡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떡국은 말 그대로 ‘떡을 넣고 끓인 국’이지만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홍석모(1781~1850)가 쓴 세시풍속서 『동국세시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찐 멥쌀가루를 안반(案盤: 떡을 칠 때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 위에 놓고 떡메로 쳐서 길게 뽑은 떡을 백병(白餅: 흰떡)이라 하고, 이를 엽전 모양으로 썰어 국에 넣고 쇠고기 혹은 꿩고기를 곁들여 끓이면 떡국이라 한다. 이것을 제사에도 쓰고 손님 대접에 사용하므로 세찬(歲饌: 설에 차리는 음식)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

새해에 상서로운 흰색의 떡국을 먹으며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심 한국문화평론가는 “본래 떡은 제사에 올리는 신성한 음식인데, 이 떡을 ‘국’으로 만들어 먹는 것은 신성함을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라며 “새해에 떡국을 먹는 것은 신성함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려는 의식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것이란 뜻에서 떡국을 ‘첨세병(添歲餅: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듯이 전국 팔도에 지역별 떡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맑은 육수에 떡을 넣고 끓여 고기, 달걀 등의 고명을 얹어 먹는 ‘서울식 떡국’입니다. 지역별 떡국은 대개 이 ‘기본형’에 만두를 넣거나, 지역별 특산물을 더하거나, 떡의 종류를 다르게 한 것들입니다. 한 평론가는 “떡국에 지역 특산물을 입혀 소위 ‘창조 떡국’을 만든 것에서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의 풍부함을

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① 우리나라 북부 지방에서는 떡보다 만두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떡연구소 송준석 원장은 “북쪽 지역에서는 쌀농사를 짓기 힘들기 때문에 쌀로 만든 떡 대신 밀이나 메밀 등으로 빻은 만두를 넣어 국을 끓여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평안도의 ‘굴린만두국’을 들 수 있습니다. ‘굴린만두’는 말 그대로 완자 모양의 만두소를 밀가루 만두피로 싸지 않고, 감자 전분에 굴려서 만듭니다. 만두소의 재료는 다진 돼지고기와 으깬 두부, 숙주 등입니다. 만두피 없이 만두소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점, 국이 다소 기름져 보인다는 점 등은 단점이지만 다른 만두에 비해 식감이 부드러운 것은 장점으로 꼽힙니다.

함경도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찜을 넣은 찜만두국을 해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대신 찜고기를 다져 만두소를 만듭니다. 국물 역시 찜고기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만두 크기가 커 먹음직스럽고 맛이 담백한 것이 특징이다.

이름이 특이한 ‘강짚지 만두국’은 황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려 절인 것을 ‘강짚지’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만두소를 만듭니다. 다른 만두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배추의 식감이 특징입니다.

② 경기 개성(황해 개성시)의 ‘조랭이 떡국’은 떡 모양이 남다른니다.

떡국에 들어가는 떡의 모양은 흔히 엽전처럼 둥글고 넓적합니다. 그에 반해 조랭이 떡국(만두국)에 들어가는 떡은 조롱박 또는 누에고치 모양입니다. 이는 멥쌀 가래떡을 가늘게 뽑아 굳기 전에 나무칼로 비벼 작게 토막 낸 후 조롱박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육수나 고명 등은 서울식 떡국과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조랭이 떡의 식감입니다. 엽전 모양의 떡국과 비교해 식감이 더 쫄깃한 것이 장점입니다.

떡 모양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다. ‘조롱박 모양의 떡을 먹으며 정초에 복을 기원한다’, ‘고려 이후 조선이 들어서자 개성 사람들이 태조 이성계의 목을 조르듯이 떡을 비틀었다’ 등의 설(說)만 있을 뿐입니다.

청도의 '날떡국'은 떡의 제조 과정이 독특합니다. 멥쌀가루와 찹쌀가루를 반죽해 만든 떡을 마치 수제비 만들 듯 손으로 뜯어(칼로 자르기도 함) 육수에 넣는 방식입니다. 날떡국은 손으로 쉽게 만든다 해서 '손 떡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쫄깃한 맛보다 부드러운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꼽힙니다.

③ 경남 지역에서 즐겨 먹는 '굴떡국'은 통영 앞바다의 굴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꿩고기 대신 멸치, 다시마로 국물을 만들어 해산물 특유의 시원한 맛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굴에 새우, 조개 등을 넣어 아예 해산물 떡국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닭을 이용한 '닭장떡국'은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떡국입니다. 닭고기를 마늘, 생강과 함께 간장에 조려 국물 재료인 '닭장'을 만들고 이를 물에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굴떡국은 시원한 맛으로 먹는다면 닭장떡국은 간장 특유의 깊은 맛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한국세시풍속사전』에 따르면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꿩고기 대신 닭고기를 쓰는 이 음식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④ 강원도에서는 초당두부를 넣은 떡만둣국을 먹습니다.

초당두부는 강릉시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천일염 대신 동해 바닷물을 간수(응고제)로 사용해 만듭니다. 떡만둣국에는 생두부를 넣어도 되고 기름에 살짝 부친 두부를 찢어 넣어도 됩니다. 두부를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큼직하게 찢어 넣어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⑤ 제주에는 '몸(모자반을 뜻하는 제주 방언)떡국'이 있습니다.

모자반은 제주 연안에서 나는 해조류로 주로 겨울철에 즐겨 먹는 별미입니다. 몸떡국은 경남의 굴떡국처럼 시원한 맛이 특징입니다. 보통 떡국에는 고명으로 달걀지단이나 실고추를 얹는데 몸떡국에는 북어채 등 해산물을 얹기도 합니다.

-기정아, 「떡국에 두부가? ... 이렇게 다르다! 지역별 떡국 비교」,  
『이투데이』, 2022년 1월 29일

보기와 같이 ①~⑤에 알맞은 소재목을 적어봅시다.

보기

떡보다 만두 ... 북쪽 지방의 만둣국들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④ \_\_\_\_\_

⑤ \_\_\_\_\_





08

# 가족



가족의 의미를 알아보고  
한국 사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가족(家族)** 집 가家/ 겨레 족族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 관련어휘

- 가정 : 한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
- 식구 :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

## 그려봅시다

--	--

대가족

핵가족

--	--

재혼 가족

입양 가족

--	--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	--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아래의 칸에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무엇이 꼴찌입니까?

---

2 한국은 어떤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

3 지수 씨는 어떤 방법으로 엄마가 되었습니까?

---

4 지수 씨는 평소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 읽기

###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①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2만 2천여 명, 하지만 사망자 수는 2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벌써 8달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인구가 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6월만 봐도 출생아는 1년 전보다 7% 넘게 줄었는데, 사망자는 오히려 3%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명 밑으로 떨어진지 오래입니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 우리나라는 같은 해 1명 밑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2분기엔 0.8명대로 더 줄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건수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30만 건이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 23만여 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0만여 건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도 2015년 이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여보려는 기존 대책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앞으로는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창원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줄곧 줄었습니다. 한때 110만 명에 육박하던 숫자가 이제 103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지키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입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하려던 이 정책,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연기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으로 출산을 유

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난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예산은 37조 원. 반면 출산율은 더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 현상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통계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이제 출산율 제고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③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방송인 사유리 씨는 우리 사회에 ‘비혼 출산’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는 1인 가구가 부부와 자녀끼리 사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정부도 현실에 맞게 비혼 동거, 사실혼, 위탁가정 등 새로운 형식의 가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엄마가 된 방송인 사유리 씨. 사유리 씨처럼 연애와 결혼 없이 아이를 낳는 이른바 ‘비혼 출산’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A 씨는 배우자 없이도 아이를 갖고 싶어 지난해 난자 냉동 보관을 택했습니다.

수백만 원대의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보관한 난자를 과연 쓸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미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공공 차원의 정자은행이 없어 기증을 받을 수 없고 산부인과에서도 미혼 여성을 인공수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비혼 출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출산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난자나 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조사하고, 비혼 출산을 막는 의료기관의 지침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커플, 사실혼이나 노년 동거 부부, 위탁가정까지 가족의 개념을 넓히고 재산이나 상속 등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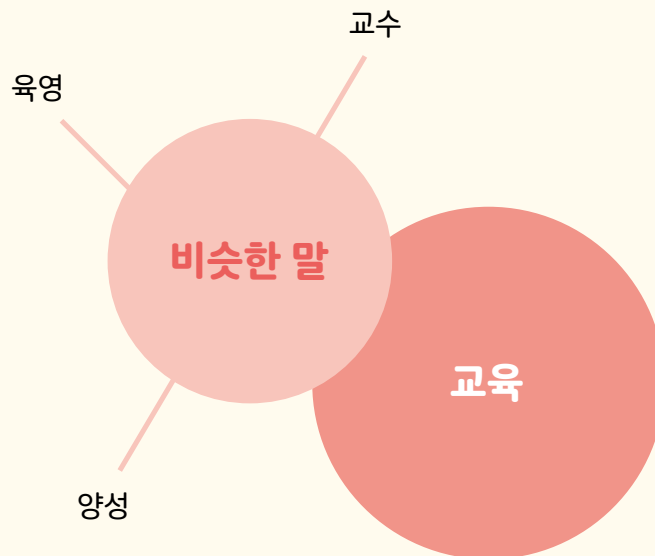


한국의 교육제도와 교육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교육(敎育)** 가르칠 교 敎 / 기를 육 育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 관련어휘

- 교육열(敎育熱)
- 학업(學業)
- 금수저
- 흙수저
- 자수성가(自手成家)
- 청출어람(靑出於藍)
- 개천에서 용난다

## 시대별 교육

시대	조선 시대	대한민국
교육 기관	향교, 서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고 교육 기관	성균관	대학교

## 교육의 종류

- 태교
- 가정교육
- 공교육
- 사교육
- 대안교육



김홍도 <서당>



김홍도 <자리짜기>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써 봅시다.

A series of 15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ed for writing the words heard in the audio exercise.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한국의 교육이 어떻다고 합니까?

---

3 한국 교육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

4 한국 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

5 여러분은 한국의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 영조의 교육열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이유로 교육열을 꼽는다. 교육열은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영조는 조선 제 21대 왕으로, 조선 왕조 역대 임금 중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왕이다. 사도세자(1735~1762)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 제 22대 왕 정조의 친아버지이다.

영조 38년, 나경언은 역모가 있다고 영조를 뵈기를 청해 놓고 역모를 말하는 대신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비행을 낱날이 고해바친다. 사도세자는 그동안 괴이한 행동을 함으로 해서 영조의 눈 밖에 벗어나 있었을 때이다. 그런 사도세자를 향한 영조의 분노는 나경언의 고변으로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고 비극은 시작되었다. 나경언의 고변이 있고 난 얼마 후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한다. 하지만 자결을 하지 않고 살려만 달라는 세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영조는 끝내 명을 내린다. “세자를 폐서인 하고, 뒤주에 깊이 가두라”

1762년 사도세자는 왕명으로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28세의 나이로 죽고 만다. 영조는 42세에 사도세자를 낳았다. 온 궁중의 축복 속에 태어난 사도세자는 영조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왕세자로 책봉할 만큼 영조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다.

영조에게는 두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다.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인 숙빈 최씨다. 그녀는 무수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궁녀는 반드시 처녀여야 했으나 무수리는 처녀가 아니어도 궁궐에 출입할 수 있기에 영조는 왕의 씨가 아니라는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또 하나는 경종 독살설이다. 영조의 배다른 형인 경종은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았는데, 병이 든 상황에서 계장과 감을 먹은 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일이 있었다. 이를 고치기 위해 영조가 인삼과 부자를 처방했으나 경종은

결국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숨지게 된다.

즉 영조는 정통성 면에서 지극히 취약한 임금이었고 왕권을 다지기 전까지는 처신을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타고난 학구열과 정치적 카리스마로 정국을 안정시킨 뒤에도 영조의 태도는 변함이 없어 한결같이 빈틈없는 모습을 보이며 완벽을 기했다.

이러한 태도는 아들인 사도세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의 사도세자는 다른 어떤 세자보다 영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태어난 지 6달 만에 영조의 부름에 대답하고 동서남북을 분간했으며, 2살 때에는 본격적으로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3살 때 있던 일화는 그가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것에 그치지 않음을 말해준다. 천자문을 배우던 중 ‘사치’라는 단어를 접하는데, 이를 본 세자는 자신이 입은 옷을 가리키며 “이것이 사치다”라고 말했다 전해진다. 나인들이 신기해 하여 비단과 무명을 놓고 어떤 게 사치냐 물어보니 세자는 비단은 사치고 무명은 사치가 아니라 말하며 무명으로 옷을 지어 입는 게 좋다고 답한다. 3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건 분명 놀라운 일이다.

장남인 효장세자가 어린 나이에 요절한 후 늦은 나이에 본 둘째 아들이 이처럼 총명하니 영조 또한 그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다. 직접 밤을 새워가며 세자가 불책을 필사하고 어전에서는 틈틈이 세자 자랑을 했으며, 가끔은 직접 세자를 자리에 앉혀놓고 글을 쓰게 해 그 글을 신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러나 세자가 4살이 되는 해부터 점점 혼을 내는 일이 늘어간다. 세자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만 영조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세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여기며 이런 일이 반복되니 아들은 아버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게 되고, 아버지는 이런 모습에 불만을 가져 더 큰 압박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급기야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나타나면 구석에서 벌벌 떠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뒤주  
국립고궁박물관

영조의 압박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영조는 정국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세자가 임금 대신 정무를 보는 대리청정을 지시하곤 했는데, 말만 대리청정이었을뿐 사도세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다면 영조가 사도세자의 결정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은 세자의 몫이었다. 심하게는 나라에 가뭄이 든 것도 세자의 덕이 부족해서라고 욕할 정도였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관용을 베풀어달라 청하기도 했으나 영조는 막무가내였고, 오히려 사도세자의 생일 때마다 대신들 앞에서 흉을 보는 등 그 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는 옷 입기를 두려워하는 의대증에 걸렸다고 한다. 의관을 갖추면 아버지를 뵈러 가야 한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때문에 옷 한 벌을 입으려면 10~30벌을 지어 올려야 했다. 맘에 들지 않는 옷을 모두 찢거나 불살라버렸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병이 발작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살인이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도세자의 손에 죽었다고 하는데 많게는 하루에 6명이 그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정신이 들고 난 뒤에는 후회를 반복했다.

사도세자의 살인 행각은 오랜 기간 지속되다 자신의 후궁인 경빈 박씨까지 때려 죽이고 나서야 영조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살인 외의 비행까지 날날이 고발되니 더 이상 세자를 살려둘 수는 없었다. 결국 영조는 세자를 폐하고 뒤주에 넣는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

2 누구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

3 사도세자를 변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

---

4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까?

---

---

5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곤 합니까?

---

---



## 더 알아봅시다

### 교육: 머리가 안 돌아가요.

교실에서 외국어가 남발하여 학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말로 이야기를 할까요?

**세이고** 오늘은 교실에서 한국어로 말하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봉고**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춤을 추면 어때요?

**마사요** 노래해요!

**시아오루** 돈을 내요.

**가요** 아이스크림을 사기로 해요.

**세이고** 빠야 생각은 어때요?

**빠야** 머리가 아파요. 생각 없어요.

**해칭** 머리가 안 돌아가요?

**메이쥬**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아파요?

**사랑** 머리가 아파요? 저에게 약이 있어요!

**해칭** 아니에요. 지금 빠야 같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모두** 아~ 그렇구나.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말은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위의 빠야 씨처럼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험문제를 풀다가 아는 문제 같은데, 정답이 무엇인지 잘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사용합니다.



# 우리말



우리말을 통해 지역의  
언어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한국어

- |          |           |           |
|----------|-----------|-----------|
| • 한글     | • 한자어     | • 한글 + 한자 |
| • 외래어    | • 신조어     | • 유행어     |
| • 비속어(욕) | • 방언(사투리) | • 순우리말    |

### 지역

- |       |       |       |
|-------|-------|-------|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도 |
| • 전라도 | • 경상도 | • 제주  |





②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윤동주 시인

1 이것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습니까?

---

2 '어느 즐거운 날'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3 '거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다음 두 글을 읽어 봅시다.

## 1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지방제도는 삼국 시대로 올라간다. 고구려는 지역을 5부로 나누어 육살이 지휘했고, 백제는 5방으로 나눠 방령이 다스렸고, 신라는 5주로 나누고 군주가 통치했다. 조선에 이르러 태종 이방원은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가 아관파천 때 전국은 13도로 변화하게 된다.

제주는 고려 시대에는 복속되지 않았는데 조선 시대 이후 전라도에 속한 지역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 독립하게 된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 8도는 조선 태종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로 나뉜다.

경기도 ‘경’은 왕궁을 뜻한다. 왕이 직접 다스리는 곳을 경현이라고 하고, 경현과 가까운 곳을 기현이라 하는데, 그 두 곳을 합해 경기도가 되었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의 앞 글자를 따왔다. 각 도의 두 도시는 당시 가장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다.

각 지역의 이름이 다르듯이 언어도 조금씩 다르다.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방언 또는 사투리라고 한다.

## 2

영화 <말모이>는 일제 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학자들과 이름 없는 대중들의 수고와 희생을 잘 보여준다. 말모이는 ‘우리의 말을 모은다’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에 편찬하고자 했던 사전의 이름이자 말을 모으는 운동이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 사람들은 한글을 여자와 백성들이 사용하

는 문자 정도로 보았고 연구와 재정립에도 소홀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뒤 일제에 의해 국권이 피탈되기 몇 년 전,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은 ‘문명 강대국은 모두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 국어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일본은 식민 통치를 위해 우리말을 없애려고 하였고, 주시경 선생은 우리말을 지켜내고자 1911년 국어의 기준점이 되는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시경 선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더욱 심해진 일제의 탄압으로 사전 편찬 작업은 중단된다. 그로부터 15년 후 조선어학회 출신 이극로, 이윤재, 이병기를 중심으로 주시경 선생의 뜻을 이어나가자 108명의 위인들이 모여 조선사전편찬회를 조직한다. 그렇게 모인 조선사전편찬회는 단계적으로 본격적인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다. 이들은 사전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한다. 또한 하나의 사물을 두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이 동안 6,111개의 조선어 표준어가 지정된다.

표준어를 정하고 나니 타 지역의 말은 모두 사투리가 되었다. 사투리를 알아야 표준어를 알 수 있기에 각 지역의 사투리를 수록한 말모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로 다른 지역별 말을 모으기 위해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글』이라는 잡지에 사투리를 모은다는 광고를 내자 전국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옛날, 새말, 사투리, 전문어, 고유명사 등으로 일일이 구분한 우리말 사전이 그 모양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 모든 작업은 일제 몰래 진행해야하는 극비사항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완전한 지배를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내선일체, 일선동조, 창씨개명, 황국신민을 외치며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조선말 사용이 금지되었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만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일본에게 조선어학회는 눈엣가시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잡아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하며 사전을 없애고자 하였다. 그렇게 사라졌다 생각한 말모이 사전은 하늘의 도움인지 조선총독부에 압수당했던 사전 원고가 발견되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1947년 『조선말 큰사전』 1권 간행을 시작으로 1957년까지 총 6권, 76만 4,125개의 어휘를 수록하였다. 주시경 선생이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46년 만의 일이었다.





## 더 알아봅시다

### 사투리: 날 수 없는 나비, 잔나비

에리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옆 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색시는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에리나**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할머니** 아~ 그래! 일본사람이구만. 띠가 뭐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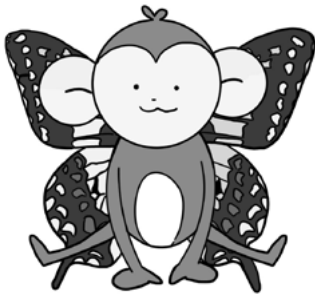
**에리나** 띠요? 저는 양띠예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나는 잔나비!

**에리나** 잔나비띠요? 한국에는 나비띠도 있어요?

**할머니** 그럴리가. 잔나비는 원숭이를 말해요.

**에리나** 원숭이요? 그렇군요. 잔나비라 ... 나비지만 날 수 없는 나비네요.



할머니가 말한 잔나비는 나비가 아니고 원숭이를  
말합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등 일부 지역의 사투리랍니다.  
그럼 어떻게 원숭이가 잔나비가 되었는지 알아보을까요?

원숭이의 한자어인 납(猿)과 매우 빠르다는 의미를  
가진 “재빠른”이 만나서 ‘재빠른 납 → 잔납+이 →  
잔나비/잔나비’가 된 것입니다.



11

#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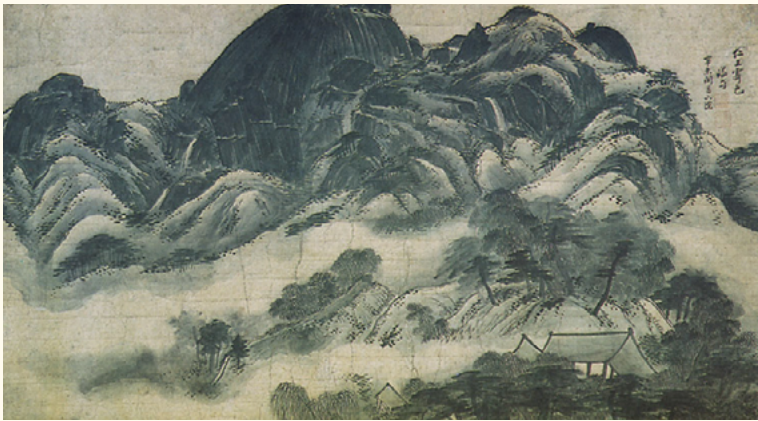


한국의 화가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조선의 화가



정선, <인왕제색도>



김홍도, <김홍도 자화상>



정선, <독서여가도>

## STEP 2 활동하기

듣기



① 다음의 내용을 잘 듣고 들리는 단어를 아래의 칸에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

-----

-----

-----

-----

-----

-----

-----

-----

-----

-----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누가 그렸습니까?

---

3 이 그림을 왜 그렸습니까?

• 최완수의 해석

---

• 홍선표의 해석

---

4 진경산수화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단원 김홍도는 조선 시대 궁중 화가로 자연과 사람, 자신의 주변을 관찰하여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자 하였다. 그가 궁중 화가로 활동하면서 그린 작품에서는 중국의 화풍에서 벗어난 조선의 모습이 있다. 그는 중국과 앞선 화가들의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 인간 사회를 사회적으로 때로는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고발했다. 김홍도만의 독특한 화풍 형성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선에서는 이전까지 중국과 한국의 명승지를 담은 산수화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단면을 김홍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김홍도는 <소림명월도>에서 기존의 기이한 산천의 모습이나 안개 낀 풍경 등을 그리던 중국적 화풍과 우리나라 산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서 벗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네 밖 풍경을 절경으로 승화하였다.

김홍도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민들의 모습이 작품의 중심에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김홍도 이전의 그림들에서도 서민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만 서민 중에서도 최하위 계층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의 생활을 작품에 표현한 것은 당시 시대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홍도의 작품 속에는 엽전을 짚어진 노비, 상인들이 시장에 가는 모습, 나그네와 규방의 모습, 밭가는 농부와 누에치는 여인들의 모습, 빨래터, 대장간, 고기잡이까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민들의 일상이 간략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원형구도 위에 풍부한 해학적 감정과 더불어 한국적 감각으로 그려졌다. 그는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끌어다가 창의성과 해학성을 곁들여 자칫 속되게 느껴지기 쉬운 풍속화를 예술적으로 만들었다.



김홍도, <무동>

특히 <무동>과 <고기잡이>에서는 천민 중에서도 가장 그 신분이 낮은 무동과 어부가 작품에 나타났다. 먼저 <무동>에서는 광대가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는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 북, 장구, 피리, 대금, 해금의 연주자들이 동그랗게 앉아 하는 연주에 맞추어 무동이 두 팔을 휘저으며 춤을 추고 있다. 비교적 단조로운 연주자들에 비해 앞에 나온 무동은 필선부터 강렬하다. 무동이 입은 초록의 옷감은 그의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어 하

얀 옷을 입은 뒤의 연주자들과 구분이 된다. 즉 이 그림의 주인공은 단연 춤추는 무동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기잡이>는 어장에 방렴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천민 중의 천민인 어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고기를 잡는 어부와 먼저 잡은 고기로 식사를 준비하는 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김홍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그대로를 관찰하고 표현하려는 의식이 있었기에 『단원풍속도첩』 같은 작품을 그릴 수 있었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는 이러한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시대상에 대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그 이면의 부정적 그림자를 동반하게 된다. 작품 속에 시대의 어두운 측면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기존의 가치와 제도, 문화의 권력층으로

귀결하게 된다. 기존의 가치에 대한 부정과 붕괴는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고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일이었다. 당시의 미술계에서 권력층이 가지는 위치를 생각할 때 그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김홍도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옷차림과 표정, 행동을 통해 당대 지배 계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였다.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에서는 장면의 대비를 사용하여 소위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계층들을 비판하고 그 모습을 더



김홍도, <우물가>

욱 극대화한다.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늙고 못생긴 지배 계층의 만남을 그림 김홍도의 <우물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작품 속 아낙은 양반에게 물을 주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근엄하고 위엄있어야 할 양반의 모습은 단정하지 못하게 배가 다 보이도록 벗은 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고 옷 사이로 불뚝 나온 배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3명의 아낙 중 양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은 젊고 예쁜 아낙이며 양반 뒤로 나이드는 아낙의 표정은 이 상황이 몹시 못마땅한 것처럼 보인다. 이 외에 <빨래터>, <노상과안> 등의 작품에서도 뚱뚱하고 나이 많은 남자와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등장한다. 김홍도는 이 작품을 통해 나이가 많고 못생긴 남자라도 돈과 신분상의 지위로 여자를 희롱하고 취하는 지배 계층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벼타작>에서는 수확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가장 서민적인 모습이



김홍도, <벼타작>

라 할 수 있는 농사짓는 모습이 작품의 소재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은 농부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주일 것이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 서민들의 모습이 그 중심에 놓이고 우스꽝스럽거나 한심한 상류 계층의 모습이 김홍도의 눈을 통하여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작품 속에 등장한다. 기존 상류 계층이 가지고 있었던 위엄 있고 존경스러운 이미지는 이 작품 속에서 희화화되고 있다.

김홍도는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작품에 인간의 통속적인 생활상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표현에 있어서 독창성을 가지고 해학과 풍자적인 요소를 더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김홍도는 작품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려 했다. 불만은 풍자가 되어 권력집단의 행태를 비웃으며 그들의 실상을 빗대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리며 조소하였다. 기존의 현실적인 표현들을 거부하고 그들이 살고 있던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모순을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표현하며 풍자하였다.

교육자에 대한 풍자로는 김홍도의 <서당>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나란히 앉은 학생들의 자리가 편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울고 있는 학생 뒤로 무엇인가를 속삭이며 도와주려는 친구와 건너편에 우는 아이를 보여 웃고 있는 학생의 모

습을 보면 사실적 표현으로 작품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또한 훈장의 모습을 대머리로 표현하며 단정한 옷차림과 사방건에 비친 민머리가 대비를 이루며 웃음을 준다. 또한 얼굴 표정을 보면 오른쪽에 앉은 양반 자제보다 왼쪽의 상민 자제들이 더 똑똑하게 보인다.

1773년 스물아홉의 김홍도는 궁중화가가 되어 영조의 어진과 왕세손의 초상화를 그렸다. 당시 초상화는 권력층만이 누리는 특권이였다. 그런 시대에 반하여 김홍도는 작품 안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



김홍도, <서당>

자화상의 제작은 시대나 화가 개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신에 대한 관심, 자기애,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규명에 대한 열의와 집착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김홍도가 살았던 조선에서 자화상은 지배 계층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였다. 그러나 김홍도는 6개의 작품 모델로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 자신의 자화상 또한 남겼다.

단원은 김홍도의 호로 명나라 문인 화가 이유방의 호가 단원이였다. 1784년 <단원도>에서 김홍도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단원이라 하였다. <단원도>는 그 현식과 화풍에 있어 명나라 오파 문징명의 수지법이 질게 드러난 문인화다. 이는 김홍도가 벼슬을 얻은 뒤 사대부들과 교류를 하며 내적으로 사대부적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원도〉 속에 거문고를 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홍도이다. 1781년 창해(滄海)옹이 자신을 찾아온 고마움을 담아 딸의 나무엔 햇별이 따스하고 바야흐로 만물이 화창한 봄날, 거문고를 타는 자신과 술잔을 권하는 담줄 강희언, 상석에 앉은 창해옹을 그리고 이날의 모임을 진솔(眞率)회라 이름지어 작품으로 남겼다. 이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은 작품으로서 고결하고 격조 있는 자아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홍도가 작품 속에 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의식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

2 이 화가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

3 작품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

4 김홍도의 작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





# 12

# 화폐



한국 화폐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TEP 1 어휘

### 핵심어휘



오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오백원



백원



오십원



십원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

2 조선 시대 화폐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읽기

다음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봅시다.

### 재미있는 화폐 이야기

옛날에 쌀, 소금 등은 그 자체의 사용 목적과 달리 물품화폐로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널리 쓰였다. 그리고 금, 은, 동 등의 금속이 그릇, 장신구 등의 재료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이 금속의 가치가 교환을 위한 화폐 가치가 되는 금속화폐로 쓰였다. 따라서 옛날에는 이들 물품이나 금속 자체의 부피 혹은 중량이 어느 누구의 가치 보증이 없어도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형성과 기술 발전으로 국가에 의한 금속화폐의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금속화폐의 주조권을 군주 등 국가 권력이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군주들은 화폐 제조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화폐의 귀금속 함유량을 감소시켜 화폐의 소재 가치가 액면가치보다 낮은 주화를 발행하게 되었다. 결국 이를 계기로 화폐의 소재로 쓰인 재료의 가치와는 별개의 명목상 교환가치인 화폐 액면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화폐의 기본 요건은 화폐 단위와 ‘액면’ 및 ‘발행 기관’으로 집약할 수 있으며, 이 기본 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화폐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핵심이다. 먼저 화폐 단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962년 제정된 긴급통화조치법에서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법전 제31편 통화 및 금융에서 ‘달러(dollar)’로 명시하고 있다. 또 일본의 화폐 단위는 통화의 단위 및 주화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엔(円)’으로 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의 화폐법에 ‘달러(dollar)’로 규정하고 있다.

화폐는 법적으로 가치가 부여된 돈으로서의 고유한 역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시각예술품으로서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은행권으로 알려져 있는 스웨덴 지폐를 비롯하여 초기에 발행된 은행권들은

화폐 도안의 사회적·예술적 측면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크게 강조하여 지폐 면에 발행자의 서명, 소지인에게 금·은화를 지급한다는 문언, 금액 표시의 문자와 숫자만이 표시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형식에 따라 아직도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의 화폐에는 이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기도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폐도안을 시각적인 조형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더욱이 디자인 선진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이탈리아, 헝가리,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서는 화폐를 하나의 예술창작물로 인식하여 화폐 디자이너와 조각가의 사인을 화폐에 넣어주기도 하고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화폐 디자인에 대한 발행 기관의 저작권을 나타내는 © 마크를 넣기도 한다.

화폐의 도안 소재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 동식물, 문화유산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중 화폐 앞면의 주 소재로는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에서부터 저명한 학자,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역사적 인물 초상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권에는 세종대왕, 율곡 이이, 퇴계 이황의 모습이, 미국 달러화에는 워싱턴, 링컨 등 역대 대통령의 모습이, 영국 파운드화의 앞면에는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모습이, 중국 위안화에는 마오쩌둥 등의 모습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처럼 인물 초상이 화폐의 도안 소재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물 초상은 다른 소재에 비해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장 압축적이고 대내외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화폐에 사용된 인물의 위엄과 훌륭한 업적이 화폐의 품위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에 비해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인물 초상이 이러한 장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인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화폐 도안으로 적합한 인물은 업적과 품성이 위대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오랜 세대에 걸친 충분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논란의 소지가 거의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평범한 이웃집 철수와 순이의 얼굴보다는 세종대왕의 얼굴이 우리의 화폐를 품위 있게 하고 보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것이 돈의 얼굴이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권 당국인 중앙은행의 화폐 도안 소재 결정 과정은 바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인물이나 도안 소재를 찾는 과정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여론조사에 기초하여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도안을 화폐에 담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승인은 물론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친 화폐 도안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 화폐 사용자인 국민들 대다수의 보편적인 정서에 맞지 않거나 국민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체를 바라는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각국 발권 당국에서는 화폐 도안으로 넣을 인물을 선택함에 있어 그 상징적 지위에 의해 자연스럽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국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현존 인물을 피하는 관행을 지키고 있다.

지난 1972년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재인 국보 제24호 석굴암의 본존 석가여래좌상을 앞면 소재로 하고 불국사 전경을 뒷면 소재로 한 당시 최고액면인 만 원권을 발행키로 하고 각 언론사와 관보를 통해 발행 공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특정 종교를 두둔하는 처사라고 반박하고 나섰고, 불교계에서 조차 신성한 부처님을 지폐에 담았다는 비난을 거세게 제기하였다.

이들 반대 입장과는 달리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석굴암 석가여래좌상과 불국사는 종교적 상징물이기 이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므로 국민이 늘 사용하는 화폐의 도안 소재로 이를 채택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도안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자 한국은행은 부득이 최초의 만 원권 발행을 취소하고 이듬해인 1973년 앞면 세종대왕상, 뒷면 경복궁 근정전을 소재로 한 만 원권을 발행하여 도안 소재로 인한 시비를 일단락 지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의 화폐 도안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에 발행된 한국은행 천 환권이다. 세종대왕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면서 화폐 도안 모델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의 만 원권에 이르기까지 40년을 넘게 훌륭한 모델 역할을 하여 왔다.

현재의 세종대왕 초상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제작(작가 김기창)하여 세종대왕유적관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1973년 지정)을 근거로 1975년에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용으로 개작(작가는 동일)한 초상을 사용하고 있다.

1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2 한국의 화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3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

4 위조지폐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무엇입니까?

---





13

# 사랑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② 잘 듣고 질문에 알맞은 말을 써 봅시다.

1 무엇이 발견되었습니까?

---

---

2 비련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

---

3 얼마 만에 세상에 나타났습니까?

---

---

4 여자는 남편에 대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

---

5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물어봤나요?

---

---

6 여자가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

---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 원이 엄마 이야기

사랑이 사라진 시대, 사랑의 감각이 무뎠진 시대, 사랑이 부족하거나 혹은 사랑이 메달라 버린 시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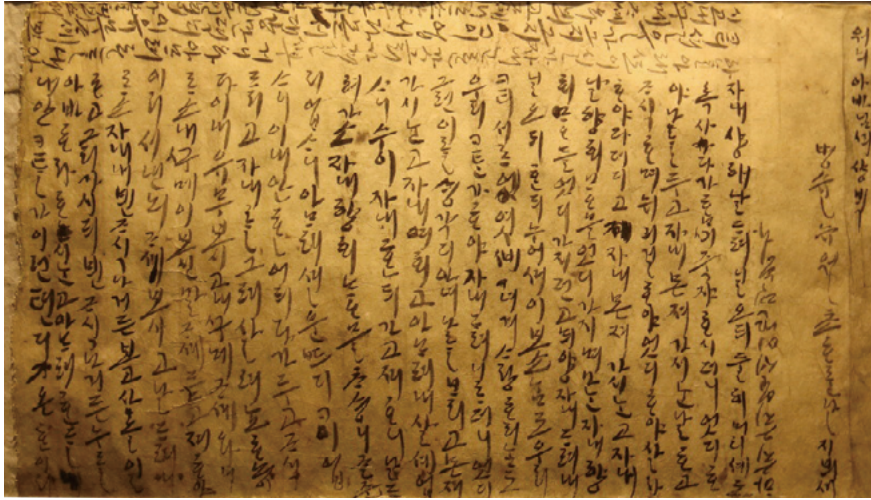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속삭이지만 인스턴트커피처럼 달콤하면서도 새털처럼 가벼워서 매일 한 잔씩 소비하고 버리는 종이컵 같은 사랑일지도 모른다. 아니라고? 우리 시대의 사랑이 그렇게 가벼울 리가 없다고 우겨대지만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다.

날마다 사랑하고 헤어져도 내일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일상이다. 사랑을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는 영화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영원을 약속하고 소셜 속에서나 ‘사랑’을 읽는다.

500년 전의 한 조선 여인이 ‘원이 엄마’라는 호칭으로 비련(悲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정하동 신도시 택지 조성 때문이었다. 1998년 안동 신도시 택지 개발 지구 조성을 위해 주인 없는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철성 이씨’라 적힌 명정(무덤에 덮는 천)이 발견됐다. 이에 고성 이씨 문중 입회 아래 발굴 작업이 이뤄졌다. 이 무덤의 주인은 서른 한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응태(李應台, 1556~1586)로 밝혀졌고 부장물 중에는 아내가 쓴 장문의 한글 편지와 ‘미투리’ 한 쌍이 온전한 형태로 있었다.

무덤 속에 봉인돼 있다가 412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아내의 편지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젊은 아내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어 사랑에 무심해진 우리 시대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원이 엄마’는 아들 원이와 배 속에 유복자를 둔 채 세상을 떠난 원이 아빠를 그리며 가로 58 cm, 세로 34 cm의 한지에 붓으로 빼곡히 쓰다가 할 말을 다 쓰지 못한



원이 어머니의 편지

것인지 한지의 위쪽 여백에도 돌아가면서 썼다. 조선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의 호칭은 ‘여보’나 ‘자기’가 아닌 ‘자내’였다.

자내 상해 날다려 날오대 둘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몬져 가시노. 날하고 자식하며 뉘 걱결하야 엇디하야 살라하야 다 더디고 자내 몬져 가시나고.

(당신 늘 나에게 이르되, 둘이서 머리가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자식은 누구한테 기대어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시나요.)

우리가 결혼식에서 늘 들던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느냐’는 말을

원이 엄마는 ‘둘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  
내 묻져 가시노’라고 원망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구구절절이 담겨 있다.

이어지는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옮겨본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뵈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배 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배 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 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 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 병술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아내 올림

서른 즈음의 젊은 아내가 사랑하던 남편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심경이 구구절절 담긴 편지 한 장은 조선 시대 한 여인의 애뜻한 사랑이 어찌면 이토록 우리 가슴에도 와 닿는지 눈물이 난다. 사랑이란 시간을 거스를 수도 있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기도 한다.

현재 원이 엄마의 편지와 무덤에서 발굴된 수의 등 부장품들은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돼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덤의 주인은 밝혀졌으나 편지의 주인공은 원이의 엄마라는 사실 외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 사랑을 잃은 가여운 이름도 모르는 조선의 여인이다.

그녀는 원이와 배 속에 둔 아이까지 두고 떠난 남편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미투리 한 켤레도 삼아 넣었다. 이 미투리를 쓴 한지에도 한글 편지가 쓰여있었으나 “이 신 신어보지도 못하고…”라며 미투리 한 켤레를 넣어 보내는 원이 엄마의 안타까운 심경을 담은 글귀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





# 부록

## 부록 1 듣기 지문

### 01 소개 - 외모

13쪽

#### 친구 1

저는 둥근 얼굴에 크고 동그란 쌍꺼풀이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높고 오뎅한 코와 도톰한 입술은 엄마를 닮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갈매기 모양으로 진하게 눈썹을 그렸어요. 머리는 오 대 오 가르마를 땀고 위로 올려서 묶었어요.

#### 친구 2

저는 작고 긴 반달눈을 가지고 있어요. 코는 낮은 편이고 얇은 입술이에요. 작고 가름한 얼굴에 짧은 파마머리를 했어요. 파마 때문인지 자주 기대는 습관 때문인지 뒷머리가 뺨어요.

#### 친구 3

제 각이 진 턱은 그렇지 않아도 크고 넓직한 얼굴을 더 네모나게 보이게 해요. 크고 높은 코는 가장 자신 있는 얼굴 부위예요. 검은 눈동자가 커서 사람들이 렌즈를 꺾는지 늘 물어보곤 해요. 단정한 단발머리를 늘 귀에 꺾고 다녀요.

#### 친구 4

저는 가름한 얼굴에 크고 쌍꺼풀이 없는 눈이에요. 작고 오뎅한 코와 입이 작아서 늘 치아가 조금 보여요. 일자 눈썹에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머릿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안 해요.

내가 박 교수님을 처음 봤을 때 짙은 파란색 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계셨다. 날카로운 눈과 짙다문 입술은 차갑고 딱딱할 것 같다는 첫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가름하고 작은 얼굴에 웃을 때 반달 모양이 되는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술은 양갈래로 묶은 파마머리에 더해져 예상과 달리 귀엽고 다정한 분이셨다. 수업 중 떠들거나 딴 짓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편이어서 엄격할 때는 엄격하고 관대할 때는 관대한 교수님이셨다. 학생들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언제나 학생들의 의견이나 문제를 귀담아 들어주시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내 친구의 얼굴은 둥글고 눈이 크고 동그란 편이다. 코가 낮으며 입술이 얇다. 나이가 많지 않지만 머리가 희고 짧은 파마머리이다. 사 대 육 가르마에 머리숱이 적은 편이어서 원래 나이보다 좀 더 많아 보인다. 옷도 꽃무늬가 많은 우리 할머니가 자주 입는 옷을 즐겨 입는다. 나는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알고 지내보니 나이는 동갑이지만 배려심이 깊고 착해 언니 같은 느낌을 준다.

나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내 친구는 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웃는 활발한 사람이다. 내가 이런저런 걱정을 이야기하면 “잘 될 거야, 걱정마” 하며 늘 위로와 응원을 해준다. 그 친구와 자주 만나다 보니 나도 조금은 성격이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도 없는 현대인들은 늘 간편하게 끼니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도시락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다만 이전과 다른 게 있다면 도시락을 직접 싸는 대신 시중에 판매되는 도시락 제품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서 사먹는 음식 가격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서 식사를 하는 1인 가구가 증가한 것도 도시락 수요를 빠르게 증가시킨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명 ‘도시락 전성 시대’를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곳은 바로 편의점인데요. 기존에 메뉴가 부실하고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들던 편의점 도시락은 지속적인 메뉴와 조리법의 개발을 통해 마침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높은 수요는 결국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제·사회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기 전에 ‘정’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진 못했다. 그러나 2년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의 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면서 한국문화를 처음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어 정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멋진 기회가 되었고, 내 삶에 매우 크고 확실한 영향을 아직도 미치는 큰 변환점이 되었다.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고시원에서 시작되었다. 이 고시원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었고,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었으며 나처럼 몇 달 후에 이사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 방은 아래층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를 자주 마주쳐서 그때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나는 한국어가 서툴렀고 주인 아주머니는 영어를 모르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다.

추석 때 고시원에서 사는 한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고향에 가고 외국인 몇 명만 남게 되었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향에 못 가는 외국인들에게 떡, 배, 사과와 같은 추석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을 주셨다. 추석은 자신의 가족과 보내는 한국 연휴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사심 없이 챙겨주려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대학교의 바둑 동아리에 가입했다. 낯을 많이 가리는 내 성적인 성격이라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나 동아리 회장님은 내가 명절에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내가 이날을 혼자 보내지 않도록 번개 모임을 준비해주었다. 이날은 동아리 회원 몇 명과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내가 귀국하기 전에는 깜짝 송별회를 준비 해주며 선물과 편지를 줘서 큰 감동을 받았다.

한국에서 홀로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 덕분에 외로웠을 법한 연휴와 공휴일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더하여 정이 많은 한국인, 활기찬 한국 생활 덕분에 앞으로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많이 쌓았다.

지금은 한국에 오게 된 계기였던 대학교 전공을 졸업했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을 향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열심히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친구를 사귀고, 특히 해외에서 온 학생을 따뜻하게 대하며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친근하게 다가가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싶다.

## 05 한국인의 특징 - 커피

58쪽

몇 해 전 주변의 많은 한국 친구들이 갑자기 ‘달고나 커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외국인인 나는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달고나 커피는 400번을 저어야 비로소 마실 수 있는 요즘 유행하는 커피라고 했다. “헐, 무슨 커피를 400번이나 저어?” 나는 생각했다. 자료를 찾고 나서야 비로소 달고나 커피가 코로나로 인해 ‘집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로 소비되며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커피를 하루 1잔씩은 꼭 마신다고 한다.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도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만큼 커피는 한국 사회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17살 때 커피를 처음으로 맛보았다. 설탕이나 우유를 전혀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맛은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맛없는 음료였다. 커피가 준 첫인상은 마치

쓰디쓴 약과 같았다. 커피를 맛본 나는 더욱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다 보니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우선, “한국 사람들은 대개 커피를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커피 한잔하시죠?’라는 인사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은 ‘어색함을 풀고 서로 친해지자’라는 사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 잔의 커피가 소통의 첫걸음이 되고 함께하는 커피 한 잔으로 서로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것이다. 참 슬기로운 방법이다.

그리고 커피는 공간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커피를 즐기는 공간은 사람들에게는 공부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자 일하다 잠시 숨을 돌리는 쉼터이며 때로는 토론의 공간이나 정보 교류의 장이다. 커피를 매개로 한 하나의 ‘공간 문화’가 한국에서 생기게 된 것이다. 이제 하나의 문화를 넘어 일상으로 자리잡은 커피.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라는 말은 더 이상 과언이 아니다.

## 06 음식 - 삼계탕

69쪽

오늘은 삼복 중 마지막 복날인 말복입니다. 든든한 보양식으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말복 더위의 기세는 한풀 수그러졌습니다. 최고 기온 어제보다 대체로 3도 안팎 떨어진 30도 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나들 것으로 보여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이 되면 나이 한 살을 우리에게 준다는 떡국 한 그릇.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설날 떡국 한 상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인데요. 그런데 상에 올려진 그 떡국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들어간 재료도, 끓이는 방법도, 모양도 모두 다른 지역별 떡국. 다양한 떡국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떡국은 맑은 육수에 떡을 넣고 끓여 고기, 달걀 등의 고명을 얹어 먹는 ‘서울식 떡국’입니다.

북한 개성의 ‘조랭이 떡국’은 떡 모양이 남다른데요. 떡국에 들어가는 떡의 모양은 흔히 엽전처럼 둥글고 넓적합니다. 그에 반해 조랭이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조롱박 또는 누에고치 모양입니다. 이는 멧쌀 가래떡을 가늘게 뽑아 굳기 전에 나무칼로 비벼 작게 토막 낸 후 조롱박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는 떡국에 만두를 넣거나 만두로만 만든 만두국을 설에 먹습니다.

충청도의 ‘날떡국’은 떡의 제조 과정이 독특합니다. 쌀가루를 반죽해 만든 떡을 마치 수제비 만들 듯 손으로 뜯어 육수에 넣는 방식입니다. 날떡국은 손으로 만든다 해서 ‘손 떡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상도에서 즐겨 먹는 ‘굴떡국’은 통영 앞바다의 굴을 넣어 만든 것입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꿩고기 대신 멸치, 다시마로 국물을 만들어 해산물 특유의 시원한 맛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라도는 떡국에 닭고기가 들어갑니다. 닭고기를 마늘, 생강과 함께 간장을 넣어 양념한 뒤 물에 넣고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남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는데, 정작 최대 입양 수출국의 불명예를 벗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영화 <두 엄마>로 최근 천 만 관객 배우가 된 지수 씨가 이달 초 2살 된 아들을 공개했습니다. 5년 전 결혼한 지수 씨의 임신 소식과 출산 소식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공개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국 사회 통념으론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은 했지만 출산은 하지 않고 입양으로 부모가 되는 길을 택한 지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수 씨는 평소에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해 왔습니다.

**여자** 아기를 갖고 싶지만 낳고 키우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남자** 올해 나이 42살. 우연히 찾은 보육원에서 지금의 준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자**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 아이를 낳을지 빨리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낳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 말이죠.

**남자** 매주 주말이면 봉사를 가며 준이를 만난 지수 씨. 결국 입양을 통해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자** 아이는 너무 갖고 싶은데 나이도 많고 출산 과정도 무서웠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입양할 수 있었어요.

**남자** 엄마가 된 지금, 지수 씨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자** 아침에 일어나면 아기가 옆에 없을까봐 불안해요.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지는 게 무서울 지경이에요

**남자** 입양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한 건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여자** 어떤 사람은 '입양했다고 말하지 마. 사람들이 차별할 거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거짓말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때문에 혹시 나중에 아이가 친부모님을 찾을 기회를 앗아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자** 그러면서 너무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자** 입양은 행복한 일이지만 선부르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를 오래 만나서 지켜보면서 내가 정말 이 아이에게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여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제도를 칭찬해 왔는데요. 또 한번 한국 교육에 대한 예찬론을 펼칩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 블로거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공립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한 블로거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질문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교사였던 자신의 여동생의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남자** 제 여동생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봉급을 적게 받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힘듭니다.

**여자** 그리고 그 반대의 사례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남자** 한국과 핀란드 같은 곳은 교육제도가 정말 잘 돼있습니다. 선생님은 의사나 엔지니어가 받는 수준의 봉급을 받고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자**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문제가 나올 때마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예찬론을 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한국의 교육열과 교육제도를 주요 연설의 단골 소재로 삼으며 교육문제에 있어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이 교육예산을 삭감하려 하자 “한국을 보라”며 반박한 적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교육 붕괴, 사교육 열풍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국 교육의 긍정적인 면이 각인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옥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윤동주

**여자** 얼마 전, 국립 미술관·박물관 예약 매진 사태를 일으킨 주역, 무료 전시임에도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압표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을 이끈 주범, 바로 ‘이건희 컬렉션’입니다. 이 ‘위대한’ 컬렉션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인왕제색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시한 국립중앙박물관도 포스터에 <인왕제색도>를 내걸었고, 홈페이지 전시품 소개에도 ‘<인왕제색도> 등 몇 점’이라 표기한 걸 보면 이 그림 한 점이 얼마나 큰 홍보 효과를 가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인왕제색도>만을 위한 영상 ‘인왕산을 거닐다’도 제작해 <인왕제색도>를 다양한 경로로 실컷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인왕제색도>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남자** 정선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겸재 정선에게는 이병연이라는 오랜 벗이 있었는데,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둘은 요즘 말하는 ‘콜라보레이션’처럼 시와 그림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선이 그림을 그려 이병연에게 전하면 이병연은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어 그 옆에 시를 쓰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751년, 6살 많은 이병연이 위독해지자 정선은 그의 쾌차를 기원하며 그림 한 점을 그립니다. 이병연과 함께 오르던 북악산에 혼자 올라 육상궁 뒤쪽에 있는 이병연의 집을 바라보며 인왕산 풍경을 그린 것입니다. ‘비 갠 제(霽)’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비가 갠 인왕산의 모습을 그리며 친구 이병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자** 이 이야기는 겸재 연구의 대가인 미술사학자 최완수 선생의 해석입니다. <인왕제색도>는 5월 29일에 생을 마감한 이병연을 위한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홍선표 교수는 이와 다르게 “겸재 정선이 자신의 집인 인곡정사와 그 주봉인 인왕산 경관을 기념비적으로 남기기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직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둘 중 더 마음에 드는 이야기로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겸재 정선은 ‘진경산수의 대가’로 불립니다. ‘진경산수’란 쉽게 말해 ‘진짜 경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 장소의 사실적 묘사에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받은 감흥과 정취를 더해 생생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조선의 회화는 조선의 미를 담아내려고 애썼고, 그렇게 조선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진경산수화’가 탄생했습니다.

## 12 화폐

142쪽

최근 한 건설현장에서 많은 수의 상평통보가 출토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화폐 상평통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조선 시대의 화폐는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에 발행되었던 저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화폐의 가치를 실용성에서 찾았기 때문에 쌀, 무명 등의 실물 화폐가 선호되었고 저화의 가치는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 조차 포화(布貨)를 국가의 화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 5년인 1423년에는 당의 개원통보를 본뜬 조선통보를 발행했지만 농경이 위주였던 조선 초기의 화폐는 유통에 실패했습니다.

인조 11년인 1633년에 주조된 상평통보는 개성을 중심으로 통용되었고 조선 후기

에 속중 때 들어서는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물물교환의 매개로써 동전이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평통보는 이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200여 년 동안 통용된 화폐로 조선 시대 유일의 법화(法貨)로 상품의 가격, 품삯, 세금, 소작료 등을 지불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상평통보가 보편화 되자 국가에서도 조세와 소작료를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동전의 가치가 커지자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지주와 대상인들은 소작료나 상품 대금으로 얻은 화폐를 유통시키는 것보다 고리대나 재산 축적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전의 발행량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되지 않아 동전이 부족한 전황(錢荒)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는 점점 높아져 물가가 하락하였고 이는 곧 조세와 소작료를 동전으로 내야 하는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조선 시대 초기에 상업은 성리학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것 하나 없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이익을 취하는 산업이라 하여 천하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조선이 화폐를 발행했던 이유는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던 쌀과 면포가 중간 유통 과정에서 상하거나 유실되는 등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막고자 함이었을 뿐 상업의 유통과 발전을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 기술의 발달과 대동법의 시행으로 생산량과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업이 발전하게 되어 화폐의 필요성과 수요는 점점 늘어났고 이런 이유로 인해 상평통보는 그전의 화폐들이 실패했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유통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호, 「EP.107 실패를 거듭 했던 조선의 화폐, 상평통보로 우뚝[키워드 한국사]」, 『시선뉴스』, 2016년 12월 4일

**남자**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한 도시의 이름 없는 무덤에서 500년 전 쓰여진 러브레터가 발견되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원이 엄마'였는데요, 건축 시공을 앞두고 무덤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철성 이씨'라 적힌 천이 나왔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서른 한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이용태로 밝혀졌고 부장물 중에는 아내가 쓴 장문의 한글 편지와 '미투리' 한 쌍이 온전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봉인돼 있다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아내의 편지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는 젊은 아내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있어 사랑에 무심해진 우리 시대에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원이 엄마'는 아들 원이와 배 속에 유복자를 둔 채 세상을 떠난 원이 아빠를 그리며 가로 58 cm, 세로 34 cm의 한지에 붓으로 빼곡히 쓰다가 할 말을 다 쓰지 못한 것인지 한지의 위쪽 여백에도 돌아가면서 썼습니다.

사랑도 이별도 너무 쉬워진 요즘, 원이 엄마의 편지를 읽으며 사랑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자**

원이 아버지에게

자네 늘 나에게 이르기를 돌이 머리 세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찌하여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나하고 자식하고 누굴 의지하며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자네 먼저 가시는고

자네 날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며 나는 자네 향해 마음을 어찌 가지던고  
 늘 자네더러 내 이르길 한테 누워서 이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어여뻐  
 여겨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같은가 하고 자네더러 일렀는데 어찌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느고  
 자네 여의고 아무래도 내 살 힘없으니 쉬 자네한테 가고자 하니 날 데려가소.  
 자네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서러운 뜻이 끝이 없으니  
 이 내 속은 어디다가 두고 자식 데리고 자네를 그리워하여 살까 하노이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찬찬히 와 이르소 내 꿈에서 편지 보시고 한 말  
 세세히 듣고자 하여 이리 써 넣네  
 찬찬히 보시고 날더러 이르소 자네 내 뺨 자식 나거든 보고 할 말 이르고  
 그리 가시면 뺨 자식 태어나면 누구를 아비하라 하시느고  
 아무리 한들 내 속 같을까 이런 천지 아득한 일이 하늘 아래 또 있을까  
 자네는 한갓 그리 가 계실 뿐이거니와 아무리 한들 내 속 같이 서러울까  
 그지그지 끝이 없어 다 못 써 대강만 적네.  
 이 편지 세세히 보시고 내 꿈에 세세히 와 보고 세세히 이르소.  
 나는 꿈에 자네 보리라 믿고 있노이다. 몰래 와서 보여 주소.  
 하! 그지그지 없이 이만 적노이다.  
 - 병술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 부록 2 한국어 발음 연습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갸	냐	댜	랴	먀	뵤	샤	야	쟈	챤	캬	탤	푼	햤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처	커	터	퍼	허
겨	녀	더	려	며	뵤	셔	여	져	쳐	켜	터	퍼	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초	코	토	포	호
교	뇨	도	료	묘	뵤	쇼	요	죠	쵸	쿄	토크	표	효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추	쿠	투	푸	후
규	뉴	두	류	뮤	뵤	슈	유	쥬	쵸	큐	투	푸	휴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으	즈	츠	크	트	프	흐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지	치	치	티	피	히

간장공장 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다.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창살이고 검찰청 철창살은 쌍철창살이다.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 상장사냐 현 상 상장사냐?

작년에 온 술장수는 새 술장수이고 금년에 온 술장수는 현 술장수이다.

저기 계신 저분이 박 법학박사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박사시다.

칠월 칠일은 평창 친구 친정 칠순 잔치날

저기 있는 말뚝이 말 맬 말뚝이나 말 못 맬 말뚝이나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 부록 3 반대어

가결(假決) ↔ 부결(否決)

공급(供給) ↔ 수요(需要)

가공(架空) ↔ 실재(實在)

공평(公平) ↔ 편파(偏頗)

가중(加重) ↔ 경감(輕減)

과실(過失) ↔ 고의(故意)

간섭(干涉) ↔ 방임(放任)

관대(寬大) ↔ 엄격(嚴格)

간접(間接) ↔ 직접(直接)

구속(拘束) ↔ 방면(放免)

간조(干潮) ↔ 만조(滿潮)

균등(均等) ↔ 차등(差等)

감성(感性) ↔ 이성(理性)

근소(僅少) ↔ 과다(過多)

강건(剛健) ↔ 유약(柔弱)

근접(近接) ↔ 원격(遠隔)

거부(拒否) ↔ 승인(承認)

급제(及第) ↔ 낙제(落第)

걸작(傑作) ↔ 졸작(拙作)

남용(濫用) ↔ 절약(節約)

결과(結果) ↔ 원인(原因)

납세(納稅) ↔ 징세(徵稅)

곤란(困難) ↔ 용이(容易)

낭독(朗讀) ↔ 묵독(默讀)

내포(內包) ↔ 외연(外延)

발생(發生) ↔ 소멸(消滅)

농담(弄談) ↔ 진담(眞談)

복잡(複雜) ↔ 단순(單純)

능동(能動) ↔ 피동(被動)

부당(不當) ↔ 타당(妥當)

단식(單式) ↔ 복식(複式)

부유(富裕) ↔ 빈궁(貧窮)

당번(當番) ↔ 비번(非番)

분쟁(紛爭) ↔ 화해(和解)

대화(對話) ↔ 독백(獨白)

사임(辭任) ↔ 취임(就任)

독창(獨唱) ↔ 모방(模倣)

삭감(削減) ↔ 첨가(添加)

막연(漠然) ↔ 확연(確然)

상봉(相逢) ↔ 이별(離別)

망각(忘却) ↔ 기억(記憶)

세련(洗練) ↔ 치졸(稚拙)

멸망(滅亡) ↔ 융성(隆盛)

소멸(消滅) ↔ 생성(生成)

모방(模倣) ↔ 창조(創造)

송구(送舊) ↔ 영신(迎新)

미숙(未熟) ↔ 노련(老練)

습득(拾得) ↔ 유실(遺失)

습윤(濕潤) ↔ 건조(乾燥)

운문(韻文) ↔ 산문(散文)

승천(昇天) ↔ 강림(降臨)

원고(原告) ↔ 피고(被告)

신부(新婦) ↔ 신랑(新郎)

원서(原書) ↔ 역서(譯書)

신중(慎重) ↔ 경솔(輕率)

원양(遠洋) ↔ 근해(近海)

악화(惡化) ↔ 호전(好轉)

원한(怨恨) ↔ 은혜(恩惠)

안정(安靜) ↔ 흥분(興奮)

응용(應用) ↔ 원리(原理)

애호(愛好) ↔ 혐오(嫌惡)

의무(義務) ↔ 권리(權利)

억제(抑制) ↔ 촉진(促進)

이단(異端) ↔ 정통(正統)

온난(溫暖) ↔ 한랭(寒冷)

인위(人爲) ↔ 자연(自然)

완만(緩慢) ↔ 급격(急激)

저하(低下) ↔ 향상(向上)

외유(外柔) ↔ 내강(內剛)

점진(漸進) ↔ 급진(急進)

용이(容易) ↔ 난해(難解)

정숙(靜肅) ↔ 소란(騷亂)

정신(精神) ↔ 물질(物質)

초인(超人) ↔ 범인(凡人)

정착(定着) ↔ 표류(漂流)

총각(總角) ↔ 처녀(處女)

조객(弔客) ↔ 하객(賀客)

추상(抽象) ↔ 구체(具體)

졸렬(拙劣) ↔ 교묘(巧妙)

축소(縮小) ↔ 확대(擴大)

좌천(左遷) ↔ 영전(榮轉)

충신(忠臣) ↔ 역신(逆臣)

중후(重厚) ↔ 경박(輕薄)

칭찬(稱讚) ↔ 비난(非難)

증진(增進) ↔ 감퇴(減退)

쾌락(快樂) ↔ 고통(苦痛)

지출(支出) ↔ 납입(納入)

탈퇴(脫退) ↔ 가입(加入)

진보(進步) ↔ 보수(保守)

퇴보(退步) ↔ 진보(進步)

질의(質疑) ↔ 응답(應答)

특수(特殊) ↔ 보편(普遍)

찬성(贊成) ↔ 반대(反對)

파괴(破壞) ↔ 건설(建設)

참패(慘敗) ↔ 쾌승(快勝)

평등(平等) ↔ 차별(差別)

폐업(廢業) ↔ 개업(開業)

가연성(可燃性) ↔ 불연성(不燃性)

포식(飽食) ↔ 기아(飢餓)

개방성(開放性) ↔ 폐쇄성(閉鎖性)

피해(被害) ↔ 가해(加害)

거시적(巨視的) ↔ 미시적(微視的)

필독(畢讀) ↔ 시독(始讀)

구체적(具體的) ↔ 추상적(抽象的)

필연(必然) ↔ 우연(偶然)

급등세(急騰勢) ↔ 급락세(急落勢)

하대(下待) ↔ 공대(恭待)

급제점(及第點) ↔ 낙제점(落第點)

하지(夏至) ↔ 동지(冬至)

기결안(既決案) ↔ 미결안(未決案)

해산(解散) ↔ 집합(集合)

낙선인(落選人) ↔ 당선인(當選人)

허가(許可) ↔ 금지(禁止)

단순성(單純性) ↔ 복잡성(複雜性)

허위(虛僞) ↔ 진실(眞實)

동질화(同質化) ↔ 이질화(異質化)

혁신(革新) ↔ 보수(保守)

매수인(買受人) ↔ 매도인(賣渡人)

흥분(興奮) ↔ 진정(鎮靜)

문외한(門外漢) ↔ 전문가(專門家)

발신인(發信人) ↔ 수신인(受信人)

임대료(賃貸料) ↔ 임차료(賃借料)

부익부(富益富) ↔ 빈익빈(貧益貧)

증가율(增加率) ↔ 감소율(減少率)

불문율(不文律) ↔ 성문율(成文律)

출발역(出發驛) ↔ 도착역(到着驛)

비수기(非需期) ↔ 성수기(盛需期)

판매품(販賣品) ↔ 비매품(非賣品)

수입국(收入國) ↔ 수출국(輸出國)

폭등세(暴騰勢) ↔ 폭락세(暴落勢)

수입액(收入額) ↔ 지출액(支出額)

한중망(閑中忙) ↔ 망중한(忙中閑)

습득물(拾得物) ↔ 분실물(紛失物)

환송연(歡送宴) ↔ 환영연(歡迎宴)

승리자(勝利者) ↔ 패배자(敗北者)

경거망동(輕舉妄動) ↔ 은인자중(隱忍自重)

승압기(昇壓器) ↔ 강압기(降壓器)

경기상승(景氣上昇) ↔ 경기하강(景氣下降)

시발역(始發驛) ↔ 종착역(終着驛)

고관대작(高官大爵) ↔ 미관말직(微官末職)

역전승(逆轉勝) ↔ 역전패(逆轉敗)

금상첨화(錦上添花) ↔ 설상가상(雪上加霜)

열등감(劣等感) ↔ 우월감(優越感)

낙관론자(樂觀論者) ↔ 비관론자(悲觀論者)

시종일관(始終一貫) ↔ 용두사미(龍頭蛇尾)

아전인수(我田引水) ↔ 역지사지(易地思之)

지출예산(支出豫算) ↔ 수입예산(收入豫算)

흥진비래(興盡悲來) ↔ 고진감래(苦盡甘來)

## 부록 4 사자성어

7

- 가담항설**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街談巷說** 街 거리 가 談 말씀 담 巷 거리 항 說 말씀 설
- 각골난망**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혀지지 않음.  
**刻骨難忘** 刻 새길 각 骨 뼈 골 難 어려울 난 忘 잊을 망
- 감개무량** 마음속에서 배어 나오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感慨無量** 感 느낄 감 慨 분개할 개 無 없을 무 量 헤아릴 량
- 감언이설** 남의 비위를 맞추는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만을 들어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甘言利說** 甘 달 감 言 말씀 언 利 날카로울 이 說 말씀 설
- 감지덕지** 분에 넘치는 듯해서 매우 고맙게 여기는 모양.  
**感之德之** 感 느낄 감 之 갈 지 德 덕덕 之 갈 지
- 갑남을녀** 갑이란 남자와 을이란 여자의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  
**甲男乙女** 甲 첫째 천간 갑 男 사내 남 乙 새 을 女 여자녀
- 개과천선**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됨.  
**改過遷善** 改 고칠 개 過 지날 과 遷 옮길 천 善 착할 선
- 격세지감** 다른 세대를 만난 것처럼 몹시 달라진 느낌. 격세감.  
**隔世之感** 隔 사이 뜰 격 世 대 세 之 갈 지 感 느낄 감
-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見物生心** 見 볼 견 物 만물 물 生 날 생 心 마음 심

**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말.  
**結者解之** 結 맺을 결 者 놈 자 解 풀 해 之 갈 지

**결초보은** 죽어 혼령이 되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結草報恩** 結 맺을 결 草 풀 초 報 갚을 보 恩 은혜 은

**경거망동**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輕舉妄動** 輕 가벼울 경 舉 들 거 妄 허망할 망 動 움직일 동

**경국지색** 임금이 흑하여 나라가 어지러워도 모를 만한 뛰어난 미인.  
**傾國之色** 傾 기울 경 國 나라 국 之 갈 지 色 빛 색

**고군분투**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 힘에 벅찬 일을 잘해 나감.  
**孤軍奮鬪** 孤 외로울 고 軍 군사 군 奮 떨칠 분 鬪 싸움 투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苦盡甘來** 苦 쓸 고 盡 다될 진 甘 달 감 來 올 래

**과유불급**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過猶不及** 過 지날 과 猶 오히려 유 不 아닌가 부 及 미칠 급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  
**九死一生** 九 아홉 구 死 죽을 사 一 한 일 生 날 생

**군계일학**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평범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을 이룸.  
**群鷄一鶴** 群 무리 군 鷄 닭 계 一 한 일 鶴 학 학

**궁여지책**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  
**窮餘之策** 窮 다할 궁 餘 남을 여 之 갈 지 策 채찍 책

**권선징악**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  
**勸善懲惡** 勸 권할 권 善 착할 선 懲 혼날 징 惡 악할 악

**극악무도** 더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남.  
**極惡無道** 極 다할 극 惡 악할 악 無 없을 무 道 길 도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보탠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함의 비유.  
**錦上添花** 錦 비단 금 上 위 상 添 더할 첨 花 꽃 화

**금시초문**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들음.  
**今始初聞** 今 이제 금 始 처음 시 初 처음 초 聞 들을 문

**금의환향**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  
**錦衣還鄉** 錦 비단 금 衣 옷 의 還 돌아올 환 鄉 시골 향

**금지옥엽** 귀한 자손.  
**金枝玉葉** 金 쇠 금 枝 가지 지 玉 옥 옥 葉 잎 엽

**기고만장** ① 일이 뜻대로 잘되어 뽐내는 기세가 대단함.  
② 펄펄 뿜 만큼 몹시 성이 남.  
**氣高萬丈** 氣 기운 기 高 높을 고 萬 일만 만 丈 어른 장

**기사회생**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  
**起死回生** 起 일어날 기 死 죽을 사 回 돌 회 生 날 생

**길흉화복** 좋은 일과 나쁜 일  
**吉凶禍福** 吉 길할 길 凶 흉할 흉 禍 재화 화 福 복 복

**난형난제** 누구를 형이라 하고 누구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두 사물의 낫고 못함을 분간하기 어려움의 비유.

**難兄難弟** 難 어려울 난 兄 만 형 難 어려울 난 弟 아우 제

**내유외강** 안은 부드럽고 겉은 강함

**內柔外剛** 內 안 내 柔 부드러울 유 外 밖 외 剛 굳셀 강

**노발대발**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怒發大發** 怒 성낼 노 發 쓸발 大 큰대 發 쓸발

**다다익선** 많을수록 더욱 좋음.

**多多益善** 多 많을 다 多 많을 다 益 더할 익 善 착할 선

**다재다능** 잘하는 것이 많음

**多才多能** 多 많을 다 才 재주 재 多 많을 다 能 능할 능

**단도직입** 혼자서 칼을 휘두르며 거침없이 적진으로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여러 말을 늘어놓지 아니하고 요점을 바로 말함을 이르는 말.

**單刀直入** 單 홀단 刀 칼 도 直 곧을 직 入 들 입

**대기만성**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

**大器晚成** 大 큰대 器 그릇 기 晚 저물 만 成 이를 성

**대동소이** 거의 같고 조금 다름. 서로 비슷비슷함.

**大同小異** 大 큰대 同 한가지 동 小 작을 소 異 다를 이

**대성통곡** 큰 소리로 목 놓아 슬피 울.

**大聲痛哭** 大 큰대 聲 소리 성 痛 아플 통 哭 울 곡

**독아청청** 홀로 푸르고 푸르다는 뜻으로, 높은 절개가 있음을 비유한 말.  
**獨也青青** 獨 홀로 독 也 어조사 야 靑 푸를 청 靑 푸를 청

**동문서답**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함. 또는 그 대답.  
**東問西答** 東 동녘 동 問 물을 문 西 서녘 서 答 대답할 답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  
**同病相憐** 同 한가지 동 病 병병 相 서로 상 憐 불쌍히 여길 련

**동분서주**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님.  
**東奔西走** 東 동녘 동 奔 달릴 분 西 서녘 서 走 달릴 주

ㄱ~ㅂ

**마이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곧 흘려 버림을 이르는 말.  
**馬耳東風** 馬 말 마 耳 귀 이 東 동녘 동 風 바람 풍

**막상막하** 더 낮고 더 못함의 차이가 거의 없음.  
**莫上莫下** 莫 없을 막 上 위 상 莫 없을 막 下 아래 하

**막역지우** 허물없이 아주 친한 벗.  
**莫逆之友** 莫 없을 막 逆 거스를 역 之 갈 지 友 벗 우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이 나간 듯한.  
**茫然自失** 茫 아득할 망 然 그러할 연 自 스스로 자 失 잃을 실

**명실상부** 이름과 실상이 서로 꼭 맞음.  
**名實相符** 名 이름 명 實 열매 실 相 서로 상 符 부신 부

**무위도식**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먹기만 함.  
**無爲徒食** 無 없을 무 爲 할 위 徒 무리 도 食 밥 식

**박장대소**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拍掌大笑** 拍 칠 박 掌 손바닥 장 大 큰 대 笑 웃을 소

**박학다식**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음.  
**博學多識** 博 넓을 박 學 배울 학 多 많을 다 識 알 식

**배은망덕** 남한테 입은 은덕을 저버림.  
**背恩忘德** 背 등 배 恩 은혜 은 忘 잊을 망 德 덕 덕

**백골난망** 죽어 백골이 되어도 은덕을 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남에게 큰 은혜나 덕을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이르는 말.  
**白骨難忘** 白 흰 백 骨 뼈 골 難 어려울 난 忘 잊을 망

**백년대계** 먼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  
**百年大計** 百 일백 백 年 해 년 大 큰 대 計 꾀 계

**백면서생** 글만 읽고 세상일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  
**白面書生** 白 흰 백 面 낫면 書 쓸 서 生 날 생

**백전백승** 싸울 때마다 모조리 이김  
**百戰百勝** 百 일백 백 戰 싸울 전 百 일백 백 勝 이길 승

**비일비재** 같은 일이 한두 번이나 한둘이 아니고 많음.  
**非一非再** 非 아닐 비 一 한 일 非 아닐 비 再 두 재

人~〇

- 사생결단**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  
**死生決斷** 死 죽을 사 生 날 생 決 터질 결 斷 끊을 단
-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事必歸正** 事 일 사 必 반드시 필 歸 돌아갈 귀 正 바를 정
- 새옹지마** 모든 것은 변화가 많아서 인생의 길흉화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  
**塞翁之馬** 塞 변방 새 翁 늙은이 옹 之 갈 지 馬 말 마
- 선견지명**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  
**先見之明** 先 먼저 선 見 볼 견 之 갈 지 明 밝을 명
-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음.  
**小貪大失** 小 작을 소 貪 탐할 탐 大 큰 대 失 잃을 실
- 속수무책** 어쩔 도리가 없어 꼼짝 못함.  
**束手無策** 束 묶을 속 手 손 수 無 없을 무 策 채찍 책
-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함.  
**是是非非** 是 옳을 시 是 옳을 시 非 아닐 비 非 아닐 비
-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종시일관.  
**始終一貫** 始 처음 시 終 끝날 종 一 한 일 貫 꿰 관
- 심사숙고** 깊이 잘 생각함. 심사숙려.  
**深思熟考** 深 깊을 심 思 생각할 사 熟 익을 숙 考 상고할 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함.  
**易地思之** 易 바꿀 역 地 땅 지 思 생각할 사 之 갈 지

**오리무중** 오 리에 걸친 짚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해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비유.  
**五里霧中** 五 다섯 오 里 마을 리 霧 안개 무 中 가운데 중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앎.  
**溫故知新** 溫 따뜻할 온 故 옛고 知 알 지 新 새 신

**알가알부** 어떤 일에 대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말함.  
**曰可曰否** 曰 가로 알 可 옳을 가 曰 가로 알 否 아닐 부

**요지부동** 흔들어도 꿈쩍하지 않음.  
**搖之不動** 搖 흔들릴 요 之 갈 지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우왕좌왕**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종잡지 못함.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함.  
**右往左往** 右 오른쪽 우 往 갈 왕 左 왼 좌 往 갈 왕

**우유부단** 어물어물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함.  
**優柔不斷** 優 넉넉할 우 柔 부드러울 유 不 아닌가 부 斷 끊을 단

**위기일발** 여유가 조금도 없이 아슬아슬하게 닥친 위기의 순간. 위여(危如)일발.  
**危機一髮** 危 위태할 위 機 틀기 一 한 일 髮 터럭 발

**유구무언** 입은 있으나 말이 없다는 뜻으로, 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  
**有口無言** 有 있을 유 口 입 구 無 없을 무 言 말씀 언

**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음.  
**有備無患** 有 있을 유 備 갖출 비 無 없을 무 患 근심 환

**유유자적**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고 마음 편히 삶.  
**悠悠自適** 悠 멀 유 悠 멀 유 自 스스로 자 適 맞을 적

**이구동성**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  
**異口同聲** 異 다를 이 口 입 구 同 한가지 동 聲 소리 성

**인과응보** 과거 또는 전생의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길흉화복의 값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因果應報** 因 인할 인 果 실과 과 應 응할 응 報 값을 보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榮華)나 덧없는 일을 비유한 말.  
**一場春夢** 一 한 일 場 마당 장 春 봄 춘 夢 꿈 몽

**일취월장** 날로 달로 진보함. 일취. 일장월취. 장취.  
**日就月將** 日 해 일 就 이를 취 月 달 월 將 장차 장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이르는 말.  
**一片丹心** 一 한 일 片 조각 편 丹 붉을 단(난, 란) 心 마음 심

**일희일비** 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남. 일비일희.  
②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  
**一喜一悲** 一 한 일 喜 기뻐 희 一 한 일 悲 슬플 비

#### ㄷ~ㄸ

**자격지심**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기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自激之心** 自 스스로 자 激 물결 부딪쳐 흐를 격 之 갈 지 心 마음 심

-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기가 받음. 자업자박.  
**自業自得**    自 스스로 자 業 업 업 自 스스로 자 得 얻을 득
-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自初至終**    自 스스로 자 初 처음 초 至 이를 지 終 끝날 종
- 자포자기**    절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보지 않음.  
**自暴自棄**    自 스스로 자 暴 사나울 포 自 스스로 자 棄 버릴 기
- 작심삼일**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함. 결심이 굳지 못하다는 말.  
**作心三日**    作 지을 작 心 마음 심 三 석삼 日 해 일 適 갈 적
- 전광석화**    ① 극히 짧은 시간.  
                   ② 아주 신속한 동작.  
**電光石火**    電 번개 전 光 빛 광 石 돌 석 火 불 화
-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음.  
**前無後無**    前 앞 전 無 없을 무 後 뒤 후 無 없을 무
- 전화위복**    재화(災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됨.  
**轉禍爲福**    轉 구를 전 禍 재화 화 爲 할 위 福 복 복
- 점입가경**    차차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감.  
**漸入佳境**    漸 점점 점 入 들 입 佳 아름다울 가 境 지경 경
- 종횡무진**    자유자재로 행동하여 거침이 없는 상태.  
**縱橫無盡**    縱 늘어질 종 橫 가로 횡 無 없을 무 盡 다될 진
- 좌지우지**    제 마음대로 다루거나 휘두름.  
**左之右之**    左 왼 좌 之 갈 지 右 오른쪽 우 之 갈 지

- 좌충우돌** ① 이리저리 마구 찌르고 부딪침. 좌우충돌.  
② 아무에게나 또는 아무 일이나 함부로 맞닥뜨림.
- 左衝右突** 左 왼 좌 衝 찌를 충 右 오른쪽 우 突 갑자기 돌
- 주경야독**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
- 晝耕夜讀** 晝 낮 주 耕 밭갈 경 夜 밤 야 讀 읽을 독
- 죽마고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며 친하게 지내 온 벗.
- 竹馬故友** 竹 대 죽 馬 말 마 故 옛 고 友 벗 우
- 중구난방** 못사람의 말을 이루 다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사람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 衆口難防** 衆 무리 중 口 입 구 難 어려울 난 防 독 방
- 차일피일** 이날 저날 하고 자꾸 약속이나 기일 등을 미루는 모양.
- 此日彼日** 此 이 차 日 해 일 彼 저 피 日 해 일
- 천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가을이 썩 좋은 절기임을 일컫는 말.
- 天高馬肥** 天 하늘 천 高 높을 고 馬 말 마 肥 살찐 비
- 천생연분** 하늘에서 정해 준 연분. 천생인연.
- 天生緣分** 天 하늘 천 生 날 생 緣 가선 연 分 나눌 분
- 천신만고** 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것.
- 千辛萬苦** 千 일천 천 辛 매울 신 萬 일만 만 苦 쓸 고
- 천차만별**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
- 千差萬別** 千 일천 천 差 어긋날 차 萬 일만 만 別 나눌 별

**천편일률** ① 여러 시문의 격조가 변화 없이 비슷비슷함.  
 ② 사물이 모두 비슷해 변화가 없음.  
**千篇一律** 千 일천 천 篇 책편 一 한 일 律 법률

**철두철미**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徹頭徹尾** 徹 통할 철 頭 머리 두 徹 통할 철 尾 꼬리 미

**추풍낙엽** ①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② 세력이나 형세가 갑자기 기울거나 시름을 비유한 말.  
**秋風落葉** 秋 가을 추 風 바람 풍 落 떨어질 낙 葉 잎엽

ㅄ~ㅎ

**타산지석**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기의 지덕(知德)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他山之石** 他 다를 타 山 뫼 산 之 갈 지 石 돌 석

**파죽지세**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당당한 기세.  
**破竹之勢** 破 깨뜨릴 파 竹 대 죽 之 갈 지 勢 기세 세

**팔방미인** ① 어느 모로 보나 아름다운 여인.  
 ② 여러 방면에 능한 사람.  
**八方美人** 八 여덟 팔 方 모 방 美 아름다울 미 人 사람 인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름.  
**表裏不同** 表 겉 표 裏 속 리 不 아닌가 부 同 한가지 동

**풍전등화** ① 바람 앞에 놓인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는 말.  
 ② 사물이 덧없음을 가리키는 말.  
**風前燈火** 風 바람 풍 前 앞 전 燈 등잔 등 火 불 화

- 피골상접** 살가죽과 뼈가 맞붙을 정도로 썩 마름.  
**皮骨相接** 皮 가죽 피 骨 뼈 골 相 서로 상 接 사길 접
- 학수고대** 몹시 애타게 기다림.  
**鶴首苦待** 鶴 학 학 首 머리 수 苦 쓸 고 待 기다릴 대
- 함흥차사** 심부름을 가서 깜깜무소식이거나 또는 회답이 더딜 때의 비유.  
**咸興差使** 咸 다 함 興 일 흥 差 어긋날 차 使 하여금 사
- 형설지공** 고생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하여 얻은 보람.  
**螢雪之功** 螢 개똥벌레 형 雪 눈 설 之 갈 지 功 공 공
- 호연지기** ①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울 바 없는 도덕적 용기.  
 ② 사물에서 해방되어 자유스럽고 유쾌한 마음  
**浩然之氣** 浩 클 호 然 그러할 연 之 갈 지 氣 기운 기
- 호의호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好衣好食** 好 좋을 호 衣 옷 의 好 좋을 호 食 밥 식
-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함. 단군의 건국이념.  
**弘益人間** 弘 넓을 홍 益 더할 익 人 사람 인 間 틈 간
- 회자정리** 사람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이르는 말.  
**會者定離** 會 모일 회 者 놈 자 定 정할 정 離 떼놓을 리
- 흥망성쇠**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興亡盛衰** 興 일 흥 亡 망할 망 盛 담을 성 衰 쇠할 쇠